



천안·아산 재난지역 선포 “복구총력”

복구비 80% 국비로 지원 받아
통신·도시가스 등도 전면 혜택

도,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정 요청
예산 231억·금산 175억 피해 막대

최근 집중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천안·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지난 7일 충남 2개 시(천안, 아산), 충북 3개 시·군(충주, 제천, 음성), 경기 1개 시(안성), 강원 1개 군(철원) 등 7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도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한다.

앞서 양승조 지사는 지난 4일과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천안·아산·금산·예산 등 4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고, 피해가 컸던 천안·아산 2개 시가 우선 선포된 것이다.

천안·아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비의 국비 지원이 확대돼 재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주택 전파·유실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 침수 100만 원, 세입자 입주보증금·임대료 300만 원 가운데 80%가 국비로 지원된다.

공공시설 복구비는 최대 88%까지 지원받게 되며, 농경지 복구비와 농림 시설 파손에 대한 지원도 국비가 확대된다. 간접 지원으로는 건강보험료 감감,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등이 있다.

아울러 도는 금산·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정부에 강력 요청하고 있다.

1차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된 금산·예산군은 중앙 사전조사 시 피

해금액이 지정 기준보다 부족해 제외됐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3일 금산 수해현장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금산·예산군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금산지역에는 610.2mm의 집중호우로 175억 원 상당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지난 8~9일 용담댐이 방류량을 크게 늘리면서 하천 제방 유실, 주택 92호 침수, 주민 233명 대피, 인삼 200ha를 비롯해 농경지 471ha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예산지역 잠정 피해금액은 231억 원에 달한다.

이날 양 지사는 “금산과 예산지역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조속히 파견, 피해 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해달라”며 “용담댐 방류와 운영·관리상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해 보상 등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광복 75주년, 충남의 마지막 독립운동가 충남도내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일남(96세)이 지난 10일 자택에서 독립의 의미를 강조하며 태극기를 펼쳐 보이고 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을 전개하는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로로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았다. /사진 김정원 <관련기사 14면>

국내 벼 품종 ‘빠르미’ 보다 더 빠른 쌀 나왔다

도 농업기술원 ‘더빠르미’ 개발
빠르미 보다 수확 4일 빨라

충남도농업기술원 국내 벼 품종 중 생육 기간이 가장 짧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기작에 성공한 ‘빠르미’ 보다 더 짧은 기간에 수확할 수 있는 쌀 개발에 성공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7월 29일 예산에 위치한 기술원 내 연구포장에서 벼 이기작 현장 시연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벼 이기작 시대 개막’ 선포와 함께 ‘더빠르미(충남16호)’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벼 생육 기간 단축은 기후변화 시대 농업용수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자연재해 회피 재배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

도 농업기술원은 품종 간 교배를 통해 새롭게 개발한 더빠르미는 빠르미보다 4일가량 수확을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2일 이양한 빠르미의 경

우 6월 29일 이삭이 나왔으나, 더빠르미는 같은 달 25일 이삭이 나왔다.

도 농업기술원은 앞으로 도내 지역별 재배 시험을 거쳐 오는 2022년 품종 출원할 계획이다.

한편 빠르미는 도 농업기술원이 지난 2009년부터 국내·외 조생종 품종을 교배해 개발한 극조생종이다. 이양부터 수확까지 걸린 기간이 70~90일에 불과, 우리나라 벼 품종 중 가장 짧다.

/작물연구과 041-635-6052

道, 중견기업 4개사 700억원 유치

보령·아산·서산에 공장 이전·신설
4개 기업 610명 고용창출

생산효과 235억·부가가치 73억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밀발’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 등 국내 중견기업 4개사가 충남 보령·아산·서산시에 공장을 이전·신설한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는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박용훈 에스비정공 대표, 한림 김용태 대표, 대한엔지니어링 이래용 대표, 듀링 고진성 대표 등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MOU에 따라 4개 기업은 도내 3개 시·군 농공 및 일반산업단지 14만 1703㎡의 부지에 총 699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한다. 이로 인한 신규 고용 창출은 610명이다.

보령에는 자동차 엔진부품 제조업체인 에스비정공이 공장을 신설하고,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한림이 새롭게 터를 잡는다.

에스비정공은 2023년 12월까지 주포농공단지 9718㎡에 100억 원을 투자하고, 한림은 내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산농공단지 11만 784㎡에 269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아산에는 자동포장기계 제조업체인 대한엔지니어링이 공장을 신설한다.

대한엔지니어링은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6553㎡에 2023년 12월까지 150억 원을 투자한다.

서산에는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듀링이 인천 남동공단의 공장을 자사 서산공장 옆 부지로 이전한다. 듀링은 서산오도밸리일반산업단지 7590㎡에 내달부터 2021년 5월까지 1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연간 235억 원의 생산효과와 73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해당 기업들의 부지 조성비와 장비 구입 등 건설로 인한 효과는 생산 유발 96억 원, 부가가치 유발 349억 원 등으로 예상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기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투자유치는 도민에게 큰 위로를 주는 낭보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충남도는 물론, 4개 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투자입지과 041-635-2235

플랜B 없는 기후위기, 충남처럼 행동하라

도정 톨아보기

장미와 코로나는 기후위기 목시록
충남, 보령 석탄화력 조기 폐쇄
첫 탈석탄 금융기관 금고선정
“지방정부 연대, 탄소중립 나서야”

두 개의 징후. 하나는 전례 없이 긴 여름 장마. 그리고 끝 모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전 지구적 시련이다.

이 두 개의 재난은 암시다. 문명의 종말을 고한다는 ‘목시록’으로 읽힌다. 지구 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달라진 기후가 동식물 생태계를 뒤흔들고 있다. 반사경 역할을 한 북극 빙하와 눈이 녹으며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의 흐름을 뒤돌릴 시간이 길어야 30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경

고한다. 지금의 환경파괴가 30년 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는 30년 전 저지른 환경파괴의 현상이라는 거다. 북극 얼음은 15년 뒤 실종될 것으로 예측된다. 호주산불, 중국홍수, 유럽폭염과 같은 기후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으로 본다. 한반도 기온상승 폭은 지구전체 보다 2배 빠르다. 극단적으로 변한 이상기온은 폭염, 폭우, 폭설을 ‘주기적’으로 일으킨다. 댕기열과 같은 열대지방의 바이러스는 이미 도시에도 출현하고 있다. 기후 위기는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괴물처럼 세지고 있다.

범 지구적인 대응이 절박하다. 즉각적인 지방정부의 역할론이 대두된다.

충남의 기후위기 대응은 간박하다. 충남도는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지구 온도 2℃ 상승을 막기 위한 ‘언더 투 연합·탈석탄 동맹에 가입

했다. 끈질긴 외침으로 보령 석탄화력 1·2호기 조기폐쇄를 올해 안으로 앞당겼다. 폐쇄된 발전소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스위치를 켜다. 도는 2026년까지 노후 화력 14기를 단계 폐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우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그 자리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웠다.

충남도의 탄소중립은 엄중하다. 도 금고 선정 시 탈석탄 투자 금융기관 우대정책을 세웠다. 탈석탄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혈세도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충남의 선도적 탄소중립 정책은 타 시도의 동참을 이끌고 있다. 탄소중립은 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해 실천할 때 비로소 온난화의 괴물을 물릴 질 수 있다. 당장 충남처럼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기후 위기에 플랜B는 없다.

/이찬선 chansun21@korea.kr



지난 9일 의용소방대연합회 등 관계자들이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일원 침수 피해 농가를 찾아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사진/맹철영



충남도 농림축산국 소속 직원들이 지난 7일 천안시 수신면, 아산시 염치읍 일원의 집중호우 피해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식량원예과



충남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태신)이 지난 11일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아산 현장을 찾아 토사정비, 바닥청소 등의 수해복구 활동을 펼쳤다. 사진/충남공무원노동조합

이재민 피해 복구에 자원봉사 3만명, 복구 구슬땀

9개 시군 이재민 1156명 발생
피해규모 1만 2451건 잠정 집계
시군별 신속 피해조사, 응급복구
55억 긴급지원·구호물자 전달

충남도가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피해 복구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를 비롯한 각 실·국장,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 및 대처상황점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상회의는 총괄 응급복구상황보고 후 시군별 피해조사 및 응급복구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사망 1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은 9개 시군에서 총 668세대, 1156명이 발생했다. 현재 79세대, 156명은 경로당, 학교, 숙박업소 등의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해규모는 잠정적으로 1만 2451건에 13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도로·하천 유실 등 공공시설 피해가 2094건(1317억 원), 주택·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1만 357건(61억 원) 발생했다. 도는 굴삭기, 덤프트럭 등 중장비 2845대와 자원봉사자·공무원 등 인력 3만 여명을 투입해 공공시설 1280건, 사유시설 6642건을 복구 완료(63.6%)했다. 도는 긴급복구에 시급한 장비 임차

비, 인건비 및 자재 등을 위해 30억 원의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재해구호기금 5억 원을 임시주거시설 운영비, 급식·숙박비, 구호물자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우성 부지사는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 응급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며 “침수지역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에 대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에도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재민 등이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란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일상생활로 복구할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1

김좌진·홍범도, 일본군 격파

청산리전투 100주년
김좌진 장군 서거 90주년 기회

① 청산리대첩 최대의 승전
어랑촌 전투

백운평전투 후 어랑촌 도착
대한군정서군 기공격 반던 중
홍범도연합부대 지원으로 승리

김좌진은 1920년 10월 22일 오전 대한군정서군을 이끌고 화룡현 어랑촌(漁浪村)에 도착했다. 대한군정서군은 10월 21일 청산리대첩의 첫 전투인 백운평전투를 수행하고 곧바로 100여 리를 이동해 천수평전투를 수행한 후 또다시 어랑촌으로 이동한 것이다. 대한군정서군은 계속되는 전투와 행군으로 많이 지쳐있었다. 그러나 화력이 우세한 일본군을 기습공격하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었다. 대한군정서군은 어랑촌 남단에 있는 고지를 점령하고 일본군과 전투에 대비했다. 어랑촌의 일본군 기세는 대단했다. 일본군은 연대장 가노우(加納) 대좌가 직접 지휘하고 있었으며 기마병·포병·보병으로 편성된 연합부대로 5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반면에 대한군정서군에게 유리한 것은 고지에서 내려다보며 전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반드시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조국을 독립시키겠다는 정신력뿐이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일본군은 끊임없이 대한군정서군이 점령한 고지를 공격해 왔다. 대한군정서군은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혈전을 이어갔다. 대한군정서군은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군의 화력에 밀려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부대가 대규모의 병력을 이끌고 김좌진의 대한군정서군을 지원하러 온 것이다. 홍범도 연합부대는 10월 22일 새벽 완루구에서 일본군 400여명(추정)을 전멸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홍범도 연합부대는 완루구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이동하던 중 어랑촌에서 대한군정서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온 것이다. 홍범도 연합부대는 일본군의 후방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일본군은 홍범도 연합부대의 공격을 받아 병력을 나누어 공격했다. 두 개의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전투는 오후 7시경 어둠을 틈타 일본군이 후퇴하면서 끝이 났다. 어랑촌 전투는 청산리대첩에서 독립군들이 벌인 단일전투로는 가장 큰 전투였고 가장 큰 승전이었다. 어랑촌전투에서 일본군과 독립군의 피해를 알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는 일본군 사망자를 300명이라 발표했다. 대한군정서군 연성대장으로 청산리대첩에 참여한 이범석은 그의 자서전 ‘우동불’에서 일본군 전사자는 1100명이며 독립군 전사자는 100여 명이라고 회고했다. 어랑촌 전투는 김좌진의 대한군정서군과 홍범도 연합부대의 빛나는 승전이었다. /이성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도정만평



도, 기림의 날 ‘위안부’ 피해자 넋 기려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서 참배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기 위한 ‘기림의 날’을 맞아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을 방문해 참배했다.

이날 양 지사와 도 실·국·원·본부장, 도의원, 여성단체장, 청소년 등 관계자 110여 명은 위령탑에 헌화·분향하고, 추모비와 장미 묘역을 찾아 피해자들의 넋을 기렸다. 양 지사는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을 기억해야

한다”며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자 분노를 용기와 연대로 승화시킨 ‘위안부’ 피해자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인 매년 8월 14일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해 일본군의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3



어랑촌전투지. /출처 독립기념관



“넘 볼수 없는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

글 쓰는 순서

- ①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 ② 충남 3대 무상교육
- ③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 ④ 탈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
- ⑤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 ⑥ 역간척, 해양정원 조성
- ⑦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등 해양新산업
- ⑧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
- ⑨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 ⑩ 공유립 밀원수 조성
- ⑪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⑫ 여성권익보호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0일 충남 아산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열린 삼성디스플레이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측 사진은 혁신공정센터 조감도.



충남이 최초인 선도사업

⑨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디스플레이는 예를 들면 TV, 휴대전화 등 액정을 얇고 가볍게, 충격에 강하고, 휘거나 굽힐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기술인데, 각종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것이다.

현재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사업비 5281억 원을 투입해 혁신공정센터를 짓고, R&D 사업을 추진한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해 취업 7567명, 생산 1조 547억 원, 부가치 4066억 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삼성이 아산 디스플레이 공장에 13조 원의 투자를 확정하며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충남도의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 살펴본다.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 전망

디스플레이(Display)는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화면에 표시해주는 장치로,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특히 디스플레이 기술은 각종 산업에 적용, 신 수요를 창출할 수 있어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시장은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디스플레이 분야를 향후 10여년 간 경제를 이끌어 갈

10대 성장 동력에 선정했다.

디스플레이 시장 충남 매출액은 2019년 기준 229억불로, 세계의 21.2%, 국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922개 업체 중 221개 업체가 충남에 위치해 있다. 연도별 업체 수는 2008년 172곳에서 2011년 194곳, 2014년 204곳, 2017년 219곳, 2018년 221곳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은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시대 디스플레이 강국 지위 유지를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R&D)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현주소

충남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을 역점 추진 중이다.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을 차세대 핵심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로 재편하고, 디스플레이 산업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으로 전자, 화학, ICT, 자동차 등 유관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세계 최고의 디스플레이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난 2018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됨에 따라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5281억 원을 투입해 post-OLED, 플렉서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디스플레이 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공정센터는 1636억 원을 들여 천안에 위치한 충남테크노파크내 2개동 연면적 1만 2,913㎡ 규모로 건립된다. 이 센터에는 이온도핑 증착기 등 58종의 장비를 설치해 2세대 공정라인 및 혁

디스플레이산업 제조업 혁신 근간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1위 사수

“디스플레이 제조 강국 출발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에타 통과 2025년까지 5281억 투입

천안 충남TP내 혁신공정센터 건립

신소재 공정장비, 물성·광특성·신뢰성 평가·분석 장비를 구축하여 중소·중견 기업의 창의 제품 실증 및 검증지원으로 신제품 개발 창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주관으로 추진하는 연구개발 부분은 3630억 원을 투입해 ‘비진공 공정 제조를 위한 OLED용 화소전극 소재 및 인쇄 공정 핵심기술 개발’ 등 66개 연구과제를 추진한다. 초저원가 구현을 위한 공정방식 혁신 및 혁신 소재·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 디스플레이 기술 등을 개발한다.

삼성디스플레이 13조 과감한 투자

도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계획대로 구축돼 가동하면 디스플레이 신시장 점유율

70% 이상 달성, 생산격차 5년·기술격차 3년 확보, 생산원가 50%이상 절감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상용화 기반 확보로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등 기업 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사업기간 1618개 특허출원·등록을 통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 3006명에 대한 직·간접고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13조 1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투자협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1위 경쟁력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신기술 전환 생산시설에 10조원, R&D에 3조 1000억 원 등 총 13조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충남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삼성디스플레이는 도가 충남테크노파크에 건립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에 R&D 용 설비를 기증하고, 이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이 구축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핵심 기술 개발로 독점적 시장을 창출하고, 초격차·초저원가 실현으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을 계획대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기본소득 보장, 정부·지자체 책무

대한민국, 3대 위기를 말하다

(3)평균의 시대로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운다. 잠시 커피 한 잔의 휴식을 위해서다. 요즘 억 소리 난다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내 차 옆으로 들어선다. 그 옆자리에 노란 병아리색 경차가 들어와 세단 옆에 나란히 세워졌다. 부부로 보이는 젊은 두 사람이 고급 세단에서 내린다. 노블레스한 모습이지만 표정은 어두워 보인다. 잠시 후 병아리색 경차의 문이 열리고 아이들의 청량한 웃음소리가 주변을 환기시킨다. 세네 살배기 아이부터 4남매의 자녀들을 데리고 차에서 내리는 중년의 부부가 세상 부러울 것 없어 보인다. 이 순간 물질로 행복

을 논할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든다. 어느 시대나 부자와 가난한 자는 존재했다. 현실적으로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벌어주는 방식이 존재하는 한 극복될 수 없는 일이다. 평균만 해도 잘 살아가는 평균의 시대는 영영 오지 않을 것 같다. 특히 도농 간의 소득 격차는 말할 것도 없다. 농사를 짓는 농가들의 소득 격차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의 연 소득은 1천만 원 미만 가구가 무려 27%라고 한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1천만 원도 안 되는 가구당 소득은 곧 노인 빈곤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지나친 부의 몰림현상은 기형적 사회현상으로 각종 범죄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사회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고

착화 된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해법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의 삶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최첨단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일부 테크니션과 자본가들에게 소득몰림 현상이 확산한다. 그로 인한 실업 대란이 현실화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욱 극명해졌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 지형이 바뀌면서 더욱 선명해졌다. 하지만 국가라는 공동체 안에서 국민 개개인이 국가성장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얻어진 소득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개인의 생존권을 보장한 최소한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며 의무이며 또한 존재의 이유이다. 국민은 결코 가난을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상대적 평등을 바랄뿐이다. 또한 계층 간의 통로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큰 것이다. 기회가 되면 누구라도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결사다리를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국가의 중차대한 책무일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충청남도도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수당 정책은 창의적이며 시의적절하다. 고착화 되어가는 빈부격차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자체가 먼저 앞장서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은 정의롭다. 또한 모처럼 지자체가 도민을 보듬는 德治(덕치)라 하겠다. 무엇보다 전국민기본소득제가 화두로 떠오른 지금 충남형 농어민수당은 국민기본소득제의 첫 사례로 그 의미가 무한하다. 세상이 공짜는 없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품듯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을 품어야 한다.



민수영 시인, 칼럼니스트



외투기업 3개사, 1억 1360만달러 유치

미국, 네덜란드 등 3개사 아산지역에 공장 신·증축 120여명 신규 고용창출

충남도가 미국과 네덜란드 등 글로벌 우량 외국인투자기업 3개사를 대상으로 1억 1360만 달러 투자를 유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글로벌 우량 외투기업 3개사 대표이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오세현 아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자유치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 불황속에서 지난 7월 9일과 20일에 이어 한 달 사이 세 번째 외투기업 투자이다. 이번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외투기

업 3개사는 미국의 에어프로덕츠와 와이케이, 네덜란드의 빔보큐에스알 등이다. 이들 기업은 아산 탕정디스플레이시티 및 인주외투지역, 영인농공단지에 향후 5년간 1억 1360만 달러를 투자, 공장을 신·증축한다. 먼저 세계적 산업용가스 생산업체인 에어프로덕츠코리아는 아산 탕정에 1억 달러를 투입,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생산에 필수적인 산업용가스 생산 설비 및 공장을 추가 증축한다. 이미 천안, 아산 탕정과 배방 등 3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에어프로덕츠는 지난해 4월에도 천안에 3000만 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빔보큐에스알코리아는 세계적인 배이커리 생산기업으로 아산 영인농공단에 660만 달러를 추가투자해 햄버거

용 빵 생산 설비 등을 증설한다. 와이케이코리아는 자동차 내장재용 부직포 및 친환경 압출시트생산기업으로, 인주외투지역에 700만 달러를 투자해 기존 부직포 생산기술을 활용해 자동차 및 산업용, 보건용 에어필터 및 마스크 생산 공장 및 설비를 증축한다. 도는 이번 3개사의 추가투자도 향후 120명의 신규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투기업들의 충남 추가 투자결정에 감사하다”며 “아산시와 긴밀히 협조관계를 구축해 외투기업들의 투자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5

도, ‘고용 유지’에 전력

도내 중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충남형 상생 일자리모델 발굴 등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충남도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투트랙’ 정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지사, 김용찬 행정부지사,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각 실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일자리 문제와 극복 방향 등을 논의,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15세 이상 인구(생산가능인구)는 188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0.3%) 증가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25만 700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도내 고용률을 살펴보면 지난달 기준 64%로, 전년 동월 대비 0.7%p 떨어졌다. 특히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전년 동월대비 0.8%p 하락하면서 충남 고용지표 곳곳에서도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도내 제조업의 인원수는 전년 대비(6월 기준) 1만 6000명(-6.1%)이 감소했다. 이에 도는 미래성장 동력 발굴과 연계한 고용창출 전략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용 유지와 창출을 위한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위기에 몰린 도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비롯한 대출을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판 뉴딜’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정부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외 우수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또 ‘충남형 상생 일자리’ 모델을 발굴, 특색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설계한다. /경제정책과 041-635-3318



전국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 ‘대통령상’

충남도가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산림청 주관 ‘제30회 나라꽃 무궁화 우수분화 품평회’에서 단체부분 대통령상을, 개인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위용을 자랑했다. 도는 무궁화분화 품평회에 대비하여 천안시 등 15개 시·군과 도 산림자원연구소와 함께 무궁화 분화 258점, 분재 14점 등 총 272점을 집중적으로 가졌다. 도는 도청 남문주차장 주변 ‘행복 나눔의 숲’에서 수상작을 포함한 무궁화 113점을 오는 23일까지 전시한다. /산림자원과 041-635-2574

道,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350억 펀드 조성

도·중기부·충남TP·투자운용사 기업 지원 ‘벤처투자조합’ 결성 투자조합 운용펀드 350억 규모

충남도가 3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도내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한다. 도는 지난 6일 중소벤처기업부, 충남테크노파크, 투자운용사인 ㈜티인베스트먼트 등과 투자조합을 결성해 도내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조합이 운용하는 펀드는

총 350억 원 규모로, 조기결성 265억 원과 오는 11월 5일까지 추가출자자 모집을 통해 85억 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조기결성 출자액은 도 30억 원, 정부 모태펀드 175억 원, 펀드 운용사 10억 원, 중소기업은행 등 4개 조합원 50억 원이다. 창업 지원 펀드는 앞으로 8년 동안 운용하며, 업력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서 설립 후 연간 매출액이 20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중소·

벤처기업에 약정 총액의 60% 이상 투자한다. 또 도내 소재 기업 또는 도내 이전 기업을 대상으로 75억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된다. 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이번 펀드가 충남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경쟁력을 가진 초기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에 도가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2

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실시

21일까지 접수·11개 기업 선정

충남도는 고용 증가 및 우수 근로복지를 제공한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 8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밝혔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근로환경개선금(2000만 원) ▲인증패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3년)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하며, 전년 대비 고용률 증가(10%) 또는 신규 고용(5명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경제과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서식 등 세부사항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1

장애인고용우수기업 28일까지 접수

올해 6개 기업 선정·지원

충남도는 장애인 고용에 앞장선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우수기업’을 선정,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총 6개 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근로환경 개선금(1000만 원), 도지사 표창 수여, 공공기관 우선구매 독려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 기간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 초과해야 한다. 또한 전체 상시근로자 수 100명 미만인 기업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가 3

명 이상(단,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제한 없음)이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장애인의 무고용률(‘18년 2.9%→’19년~’20년 3.1%)을 초과하는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장애인고용 관련부서 등)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1

위기 관리는 협치 실현이 관건이다

자치분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②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코로나(COVID-19) 이후 우리 사회는 언택트(Untact, 비접촉)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대면으로 대인관계가 변했고 여러 곳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회질서가 재편되었다. 정부의 행정환경에도 큰 변화가 작용했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기반하여 방역체계를 구축한 K방역은 진단용품(kit)과 운전자 진료(drive through) 개발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고 있다. 메르스와 신종플루를 경험하면서 국가방역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주도하는 전문성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냈다.

위기 위한 새로운 위기관리체계 점검이 필요하다. 양극화와 비대면으로 무너진 상권은 단시간 내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난세일수록 책임 행정이 요구되며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선도하여 주민조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치체제 구축이 가능할 때 올바른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자치의 구성원인 주민들이 그릇된 정책과정에 늘 방임하면서 사후약방문식으로 맞설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성과는 옳이 주민 몫으로 돌아온다는 사명감으로 지역공동체의 관심사에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권리는 잠자는 자에게 유효하지 않으며 지역별 공공의제(public agenda)는 형성과정부터 직접 참여할 때 주민의식이 생기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치단체별로 코로나 환경에서 추진된 행정업무들은 상반기 직무분석평가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직무수행에 감염수칙 엄수가 일상화되면서 계획대비 성과와 진도는 턱없이 저조했고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었다. 대내외의 참여 행사는 전면 보류되었고, 집합 회의는 연기나 화상으로 대체되었으며, 현안 사업들조차 형식 절차로 대체되거나 후반기로 미뤄졌다. 더 큰 우려는 후반기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간 협치(governance)로 분권의 가치와 방역시스템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주민자치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체제 구축이 성패의 관건이므로 비대면 사회환경일수록 세대 간 정보격차(information divided)부터 해소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세대 간 소통될 때 참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립수준에 따라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조직화에 행정기관이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 조직화 되고 훈련된 집단일수록 외부환경 변화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시스템의 활용수준에 따라 주민자치와 분권 수준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새롭게 형성되는 패러다임에 잘 적응하는 지역과 주민들만이 완성된 주민자치를 맞보게 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지역에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할 난제에 맞닥뜨렸다. 지역별 공직자들은 단순히 지표달성 외에도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

/김진욱 교수
혜전대학교 창의교양학부장



서산 대산에 세계 최초 부생수소발전소 준공

2550억 투입·한화토탈내 건립
발전소, 연간 40만MWh 전력 생산
16만 가구 사용할 수 있는 규모
질소산화물·이산화탄소 배출 전무



세계 최초로 건립된 충남 서산시 대산을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세계 최초 부생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들어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 한화에너지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양승조 지사와 정세균 국무총리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준공식을 가졌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지난 2018년부터 2550억 원을 투입해 한화토탈 대산공장내 건립됐다.

2만㎡의 부지에 0.44MW급 연료전지 114대를 설치, 설비용량은 50.16MW에

달한다.

이 발전소는 한화토탈로부터 고순도 수소를 공급받아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연간 발전량은 40만MWh로, 이는 16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질소산화물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도 대화를 나누는 수준인 60데시벨에 불과하다.

발전 효율은 50%로 석탄화력(33%)

보다 높고, 부지 면적은 같은 규모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태양광의 300분의 1 수준이다.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건설 기간 중 연인원 2만 5000명의 고용을 창출했고, 건립 후 지역 내에서 20명을 고용했다.

환경적으로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미세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전무,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정

화, 화학산단 내 신재생 친환경 발전을 통한 지역 이미지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동안 도는 ▲충남형 수소경제 육성 전략 수립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 기반 육성 사업 ▲수소에너지 국가혁신 클러스터 사업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개최 ▲충남 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추

진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축사를 통해 “세계 최초 부생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라며 “기존 화석연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과 환경오염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장 강력한 대안이 바로 수소에너지이다. 충남도는 수소경제 시대 중심 지역으로, 수소경제 촉진 인프라를 확대해 가면서 대한민국 수소경제를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3월 ‘충남형 수소경제 육성 전략’을 세우고, ‘수소경제 선도 국가 도약의 혁신 거점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목표는 ▲2040년까지 연간 수소 157만 8000톤 공급 ▲수소차 49만 600대 공급 ▲충전소 150기 건립 ▲수소 기업 200개사 육성 등으로 잡았다.

/에너지과 041-635-3454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토론회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은 지난 7월 28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공간U에서 ‘KBS충남방송총국 설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도민들의 알권리 확대 및 언론환경 개선을 위한 KBS 지역방송총국 설립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시민재단 070-7782-3254

아산신도시 개발 9년만에 ‘본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심의 통과
인구 2만 7572명 수용할 전망

집적지구 조성사업 등 국가계획과 연계해 공공주도로 신도시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충남도는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은 KTX 천안아산역 중심의 배방택지개발지구와 아산디스플레이시티 산업단지 사이 입지해 357만㎡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2조 2120억 원으로, 인구 2만 7572명을 수용하는 신도시로 개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삼성디스플레이시티 신규투자 발표, KTX역세권 R&D

LIH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하며, 2021년 까지 개발 계획을 수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2년 착공, 2027년 준공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05년 1764만㎡ 규모의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6월 513만㎡로 대폭 축소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됐던 지역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심의가 통과돼 아산신도시라는 큰 그림이 형태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건설정책과 041-635-4619

엄니, 나 시방 애상받쳐유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47)

알려지지 않은 충남지역어
“속상한 감정이 밀려올라오다”
애상바치다, 애상받치다, 애상나다
충남 남부·북부지역방언 ‘각각’

올해 ‘말모이 100년, 다시 쓰는 우리말사전’이 나온단다. 조선일보사는 작년부터 전국방언을 수집했다. 홈페이지 전국말모이 창에는 수많은 방언들이 쌓였다. 충남에서도 여러 분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충청말에 애정을 지닌 분들이거나 충청방언사전을 편찬한 분들이거나 각 시군의 문화원 관계자들이다. 들리는 말로는 2천 개 정도의 충남 방언이 올라왔단다.

지난 5월, 400개의 충남방언이 왔다. 2천 개에서 추린 것이란다. 전국 말모이사전에 실을 수 있도록 감수를 맡아달란다. 그런데 흔히 알려지지 않은 말들이 많았다. 200개 정도는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나머지는 내가 모르거나 설명하지 못할 말이

었다. 나는 아는 만큼 정리하고, 내가 잘 모르는 말을 추렸다. 메모장에 100여 개가 따로 모였다.

고민이다. 평소라면 경로당 두 곳 정도 가서 한 나절 놀다보면 끝난다. 8-90대 어르신 몇 분이랑 고시랑고시랑 옛날얘기 하다 보면 나온다. 다는 아니어도 절반 이상은 판결난다. 그런데 못 간다. 코로나가 휘날리는 경로당은 금단의 땅이다. “애상바치게 하지 말구 가만히 좀 있어유.” 이 말은 누군가 조선일보 홈페이지 올려놓은 말이다. ‘속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니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전할 때 쓰는 말.’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애상바치다’는 많이 들어본 말이다. 그러나 써보지는 않은 말이다. 예산이나 서산의 어르신들은 쓰지 않는다. 그런데도 내가 이 말에 익숙한 것은 논산, 금산, 서천 친구들에게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애상바치다’는 전라방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 충남남부지역에서도 흔히 쓴다. 그런데 자꾸만 신경 쓰인다. 예전에는 충남북부지역인 청양이나 당진, 아산에서도 쓴 말 같기 때문

이다. ‘애상(哀傷)’은 가슴이 아프고 속상하다는 뜻의 한자말이다. ‘받치다’는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애상바치는 것’은 ‘속상한 감정이 혹 밀려올라오는 것’이다. 어법에 맞춰 쓰면 ‘애상받치다’가 정확한 것인데...

다시 주말이다. 나는 엄니한테 달려간다. 주름진 구순 앞에 메모장을 디민다.

“엄니, 나 시방 애상받쳐유. 이 애상받치던 말 써보셨유?”

“아녀. 애상받치던 게 아니구 애상나던 거.”

“아, 애상나던 거. 그거 많이 들어봤던디.”

“그려. 여기선 애상난다구 그려. 너만 보든 내가 애상나서 똑 죽었어. 그렇기 쓰던 거.”

나는 엄니의 말을 녹음기에 적어 넣는다. ‘애상받치다-충남 남부지역 방언, 애상나다-충남 북부지역 방언’.



이명재
시인·충청언어연구소

내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 67억

8월 27일까지 해당 시군으로 신청

충남도는 내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67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2021년도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와 노후 시설개선을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 공모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사업체를 보유한 곳이면 가능하다.

사업 내용은 비 가림시설, 고객편의시설, 공동화장실 등 상인 또는 고객 공동이용 시설의 설치·개량·보수

및 확장 등이며, 사업비 67억 원이 투입된다.

도는 1차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경영활성화 등을 평가한 뒤, 2차 선정심의회위원회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시군 전통시장 담당 부서로 8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도 소상공기업과(041-635-3448)나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8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3건 선정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등 3건

충남도는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도내 3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물관리정책과) ▲농

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금산군)이 우수사례로 꼽혔다.

도가 진행하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단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공급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균형발전담당관 041-635-3200



천안·아산 '자동차 강소특구' 지정됐다

과기부, 천안·아산 강소특구 결정

천안 불당동,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종세일반산단 일부 등 1,08㎢ 규모다.

충남 천안·아산이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산업 등을 집중 육성한다.

도는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 위원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소특구는 혁신 역량을 갖춘 기술 핵심기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고밀도 기술사업화 거점을 구축하는 새로운 연구개발특구 모델이다.

강소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술 사업화 자금 및 인프라 지원, 세제 혜택, 규제 특례 등 행정·재정적 지

원을 받게 된다. 천안·아산 강소특구는 KTX 역세권인 천안 불당동과 아산 탕정면 일원, 천안 종세일반산단 일부 등 1,08㎢ 규모다.

도는 이 지역을 국내 유일 자동차 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중심으로 미래형 ICT(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자동차 부품 특화 연구개발특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등 3개를 특화분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

차량용 디스플레이·인포테인먼트는 외부 환경 정보를 표시하는 인포메이션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엔터테인먼트 통합시스템이며 차량용 조작·입력 디바이스, 커넥티드 디바이스, 디스플레이 장치 등을 중점 연구 개발하게 된다.

차세대 배터리 소재·부품 분야는 배터리 소재와 셀, 모듈, 팩, 충전기 등을 포함한 전체 배터리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차량 전기에너지 효율적

활용 및 안정화 기술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미래형 자동차 융복합 부품 분야에서는 차량·운전자 중심의 편의성 향상과 주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초경량 고강성 내외장 부품 소재 및 시스템을 중점 연구 개발하게 된다.

도는 성공적인 강소특구 육성을 위해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도내 자동차 관련 기업, 전국 산·학·연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업 맞춤형 우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업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창업 및 연구소 기업 설립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 방침이다.

도는 천안·아산 강소특구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부가가치 604억 원, 고용 1155명, 생산 1578억 원 등의 경제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성장과 041-635-3956

로드킬 음성 신고 시범 운영

내년부터 서비스 전국 확대

충남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보다 쉽고 안전한 로드킬 신고 시스템을 선보인다.

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15개 시·군 대상 '로드킬 바로신고 서비스'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로드킬 바로신고는 에스케이(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앱(App) 티맵(T-map)과 연계한 음성 신고 서비스로, 에스케이텔레콤,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업·추진한다. 이번 서비스는 주행 중에도 음성 신고가 가능해 기존 방법보다 안전하고 간편하다.

운전자가 차량 내장형 티맵 내비

게이션이나 휴대폰에 설치한 티맵 앱을 통해 음성으로 로드킬 바로신고 하면 도가 개발한 로드킬 플랫폼이 신고 위치와 방향 등 내용을 분석해 처리를 담당하는 해당 도로기관으로 전달한다.

도가 개발한 로드킬 플랫폼은 해당 지역 신고를 필터링해서 중복 신고를 방지하고, 신고 위치를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출동을 돕는다.

도와 협력기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로드킬 신고 지역에 대한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내년부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책기획관 041-635-3123

육지와 가까운 작은 섬, 육도

충청이 품은 섬 이야기 (20)보령 육도

인근 6개 섬 중 지대 가장 높아 섬 왼쪽 남쪽 바닷가 마을 형성 주변 섬 허육도, 방파제 역할

육도는 27가구 46명, 면적 0.06㎢이며 섬에 최고점은 21.9m이다. 이름의 유래를 보면 육지와 가까운 섬이라 하여 '육도(陸島)'라고 부른다. 생활권인 오전 항과는 8.3km이며 여객선으로 30분 정도 거리에 있다. 육도는 월도, 허육도, 오도, 안마도 등과 군도를 이루며 천수만 입구를 가로막고 있다.

이곳 주민들의 주업은 어업이다. 섬 주변에 조류가 급하여 난장망과 주막망의 형성이 잘 되어 어획량이 많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예전과 같지가 않다.

육도에 내려서 보니 연인인듯 보이는 한 쌍이 연신 화공치와 갑오징어를 잡아낸다. 선착장에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띄는 것이 기름통들이다. 어선들이 바다를 갈 때 기름을 넣고 가야하기 때문에 기름배가 오면 미리 받아 놓는다.

그리고 그 주위로 그물들이 널브러져 있다. 포구 입구에는 호안 시설표지석이 있다. 2003년에 정부지원을 받아 도서종합개발의 차원에서 개발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호안시설이 제법 길게 이어졌다. 방파제를 중심으로 동서로 이

어진 남쪽면 전체가 호안시설이다. 마을 입구에는 안내판이 하나 있다. "육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꽃말과, 도로명주소(육도길) 꽃말이 붙어 있다. 육도교회에서 세운 간판이다.

육도는 섬의 왼쪽 남쪽 바닷가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그 외는 모두 임야와 농지다. 조그마한 포구에는 그다지 복잡한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여촌이라기보다는 조그마한 농촌처럼 보인다. 집과 집 사이의 공터, 길과 길 사이의 공터는 대부분이 밭이다. 그리고 여느 여촌에서나 볼 수 있는 파밭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을은 가운데 밭을 중심으로 빙 둘러있다. 이곳에는 육도교회라는 조립식으로 된 교회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다. 구릉지라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다. 다만 교회에서 마을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 바라본 육도의 규모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추도에 비해서는 큰 편에 속한 섬이긴 하지만 작기는 마찬가지다.

대부분이 방파제로 반원형의 형태를 취하지만 포구는 남쪽 전체 면이 확 트인 공간이다. 아마도 주변의 섬들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리라. 특히 바로 앞에 허육도가 방파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거기에는 허육도와 육도 사이의 바다는 양식장이다. 그리고 이곳의 여객선대기소는 방파제가 아닌 이곳 동쪽 물양장 쪽에 위치해 있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산재사망사고 없는 일터” 다짐 충남도와 대전고용노동청, 도내 건설협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이 산재사망사고 감축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도청에서 이우성 문화체육부지사, 김규석 대전고용노동청장,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정원웅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세종시회장, 이호명 대한전국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회장 및 소속사업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건설현장 산재사망사고 및 흡서기 건강보호 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6

시내·농어촌버스 이용 만족도 높인다

노선버스 경영개선방안 시행 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 도입

충남도가 시내·농어촌버스의 합리적인 재정지원과 투명한 보조금 관리 등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한다.

도는 노선버스 혁신적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 이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먼저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와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표준회계처리 지침 및 운송원가 산정기준 제시 ▲운송원가산정 용역 도 일괄 발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별 상이한 운송원가 분류기준 및 손익 산정방식에 대해 동일한 회계처리 방식과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처리 투명성을 높이고 손실규모 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적정 재정지원 규모의 산정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운송업계 경영 건전성 확보를 위해

서는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은 노선별 운송수입금 관리 및 운송손익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해 효율적인 노선개편 등 운송업체 경영개선은 물론 투명 경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향상 방안으로 책임 노선제 확대, 시민모니터단 운영,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강화, 민원발생시 경영서비스평가 패널티 적용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운송손실, 시군별 재정력 지수, 교통안전도지수, 경영서비스 평가 등을 반영, 재정지원 배분기준을 재정립한다.

/교통정책과 041-635-2842

호우·폭설 등 자연재난 사전 예측한다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충남도가 호우·폭설·지진 등 자연재해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도민에게 알리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는 행정안전부 ‘2020년 재해위험 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에 선정, 국비 2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침수위험이 큰 저지대나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지역, 노후한

위험 저수지 등 재해 위험지역에 디지털 계측장비와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지형 등에 따라 재해를 견딜 수 있는 기준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춘 관찰 장비로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위험징후가 나타나면 조기경보 체계를 가동해 주민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는 공주·보령·아산·당진·서산시와 홍성·예산·부여군 등 8개 시군 재해위험지역 13곳에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내년 초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인공지능(AI) 스피커, 마을방송, 전광판 등으로 재해위험 경보를 받을 수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예·경보 시스템을 확대·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3



보령 육도 전경



노인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늘린다

도-노인의료나눔재단 업무협약 지원 대상 연령 60세로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충남도가 노인의료나눔재단 등과 손잡고 도내 노인인공관절수술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도청 상황실에서 양승조 지사는 김성한 노인의료나눔재단 이사장, 전대규 대한노인회 충남연합회 회장, 천안·공주·서산·홍성 의료원 원장과 '취약계층 노인 인공관절수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간 이원화돼 있는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사업을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기존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한부모가족(조손)이 추가 포함됐다.

지원 연령도 6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도 사업비로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본인부담액 중 12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도가 지원키로 했다.

대상자 선발 및 지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 자체 계획과 내부규정에 의거하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조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내 4개 의료원은 도와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와 재단에 통보한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협약을 통해 무릎 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을 추가해 수혜 대상자가 많아지게 된다"라며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들에게 더 많은 수술 기회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노인 2439명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을 지원했다.

/보건정책과 041-635-2645



예산에 내포보부상촌 개장

국내 유일의 보부상 테마마을인 '내포보부상촌'이 문을 열었다. 내포보부상촌은 예산군 덕산면 온천관광지와 매한운봉길의사사적지 인근에 위치한 내포보부상촌은 부상역사유물관 등 전시관과 장터, 체험공방 등이 조성됐다. 특히 옛 장터를 재현한 장터마당에는 보부상이 유통시키던 물품을 판매하는 보부상점과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주막이 자리잡았다. 연중무휴로 여름철 기준 개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금·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건설정책과 041-635-4627

도내 중소기업 기술·정보 보호 앞장선다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식 정보보호 컨설팅·웹 점검 등

충남도는 지난 7월 31일 천안시 소재 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ICT융합센터에서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20년

도 신규 정보보호지원센터 구축 공모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선정됨에 따라 문을 열게 됐다.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는 정보 보호 활동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지역 전문 인력 양성 및 새로운 서비스 개발 촉진 등 산업 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보호 컨설팅, 웹 사이트

(web site) 취약점 점검 지원, 정보 보안 인재 양성 등을 실시한다.

김하균 도 기획조정실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사이버위험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지키기 위해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로운 디지털 뉴딜 사업에 맞춰 정보 보호 전문 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보화담당관 041-635-3732

10월 말까지 충남 관광자원 홍보 공모전

사진·영상·캐릭터 등 3개 부문

충남도는 도내 관광명소나 먹거리, 축제 등 관광자원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충남 관광 홍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도내 자연, 사람, 문화, 관광, 축제 등 관광자원이며 사진, 영상(UCC), 캐릭터 등 3개 부문으로 모집한다.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참여 가능

하고, 1인당 사진 5점, 영상 3점, 캐릭터 2점 이내로 응모할 수 있다.

접수는 도 누리집 내 공모전 접수 게시판과 전자우편(contest041@gmail.com)을 통해 오는 10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도는 참신성, 작품성, 명확성 및 홍보 활용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11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사진, 영상, 캐릭터 3개 분야에 대상, 우수상 등 75점을 채택

할 계획이며 시상 규모는 총 4470만 원이다.

선정된 작품은 추후 관광 홍보관 운영, 관광 영상 및 책자 제작 시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남문화관광 누리집(https://tour.chungnam.go.kr)을 참고하거나 한국SNS인재개발원(☎010-2683-2182), 도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관광진흥과 041-635-2442

충남도립대 1학기 무사 종강 개강부터 80일간 방역

충남도립대학교가 80일간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펼친 결과 확진자 발생 없이 올해 1학기 수업을 무사히 끝마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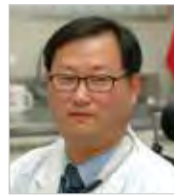
지난 7월 28일 충남도립대학교 주민세 미나실에서 열린 '1학기 무사 종강 기

념식'에서 허재영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 50여명이 방역활동에 동참한 학생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12

협심증과 심근경색증 그리고 홍성 의료원

건강칼럼



신성균
홍성의료원 심장내과장

심장은 사람들이 가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슴 중앙에 있으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심장은 잠깐도 쉬지 않고 대동맥을 시작으로 전신 동맥을 통해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자신도 대동맥 시작 부위에 관상 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혈액을 공급 받는데 이 혈관이 나이가 들면서 기름 찌꺼기가 끼어 딱딱해 지고 내부가 좁아지면 동맥 경화증이라 하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에 의해 악화됩니다. 관상동맥에 동맥 경화증이 생기면 협심증이라는 병이 생길 수 있으며 운동 시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나며 더 진행되어 혈관 내로 터져 버리면 심근 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심근 경색증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이며 조기 진단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이 같은 협심증과 심근 경색증은 심전도, 혈액 검사, 심장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심근 경색증 중 가장 위험한 ST 분절 상승 심근 경색증은 심전도 와 증상만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협심증은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증상 호전이 없으면 심혈관 조영술이라는 시술을 통해 관상 동맥

동맥 경화증의 정도를 확인해야 하며 심한 경우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확장 시켜 증상 호전과 급사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심혈관 조영술은 1953년 처음 스웨덴 의사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1977년에는 이탈리아에서 풍선 확장술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풍선 확장술을 통해서 잠시 넓어졌던 혈관이 다시 좁아지는 현상이 관찰 되어서 1984년 역시 이탈리아 의사들에 의해 스텐트라는 기구를 풍선 확장술 후에 삽입하면 재협착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 이 스텐트에 약물을 묻혀서 재협착을 더 줄이는 약물 용출 스텐트가 일반적인 시술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에는 서울 대형 병원에서만 심혈관 조영술과 시술을 했으나 장비와 기술의 발달로 현재는 전국의 웬만한 중대형 병원에서는 모두 시행되고 있습니다. 협심증, 심근경색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며 얼마나 빨리 시술을 하느냐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여 가능한 빨리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홍성의료원은 2012년 6월부터 심혈관 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을 하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총 223 명의 지역주민에게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했으며 57명의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를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향후 지식과 경험을 더 쌓아가며 지역사회에서 심장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충남소방본부 재난상황관리 '최고'

소방청, 19개 시도 소방본부 평가

충남소방본부(본부장 손정호)는 소방청 주관 2020년 상반기 전국 119재난 상황관리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119재난상황관리 평가는 소방청에서 전국 19개 시도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대응 1단계 이상 또는 사망자 2명 이상 발생'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대응과정을 평가하는 제도로 상-

하반기 실시된다.

평가는 최초보고의 신속성과 정확성, 대응단계별 상황과파 및 보고의 신속성, 재난영상 및 무전 전파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 소방본부는 정확한 상황판단과 대응능력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서울, 대전 등 5개 시도와 함께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상반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19종합상황실 041-635-5660

10월 말까지 도민 건강조사 실시

흡연·음주여부와 고혈압 등 조사

충남도는 오는 10월 31일까지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기획·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표본 추출로 선정된 도내 만 19세 이상 성인 1만 3500명이다.

조사는 도내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직접 조사 가구를 방문하는 일대일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며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한다.

조사 내용은 흡연, 음주, 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며, 손 씻기 실천,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 19 관련 문항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3월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6



당진챔버오케스트라는 지역 음악활동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두 번 문예의 전당에서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을 연다. 사진은 정기공연 무대의 모습.

베토벤을 연주하는 당진의 마이스트로

문화인-당진챔버오케스트라

당진 유일무이 오케스트라단

“클래식 활성화 앞장서겠다”

“지역주민과 문화적 삶을 공유하고 연주자들에게 활동무대를 제공함으로써 클래식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당진챔버오케스트라 이우직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는 클래식에 대한 당진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역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3년 당진 유일의 오케스트라를 창단했다.

이 감독과 뜻을 함께한 이들은 충청권 각지에서 당진으로 강의를 다니는 방과후학교 강사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유학파 출신 전문연주자들로 지금도 충남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기도 하다.

이우직 감독은 “단원 20명에 객원단원까지 총 35명 정도가 무대에 오른다”며 “지역에서 유일한 오케스트라로서 연주자들에게 역량을 마음껏 펼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클래식을 접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는 정기연주회, 특별연주회 등 1년에 두 번 수준 높은 공연을 선사한다.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정기공연은 베토벤 서곡과 협주곡, 교향곡 등 18-19세기 정통 클래식이 느껴지는 곡들로 구성된다. 특히 작은 오케스트라 편성으로도 음악적 감동이 전달되는 운명교향곡은 당진챔버오케스트라의 대표 곡이다.

매년 하반기에 열리는 특별연주회엔 유명연주자와의 협연 등을 통해 시대·장르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곡을

소화한다. 고전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아우르는 무대를 준비해 관객들과 눈높이를 맞춘다.

이 감독은 클래식이 낯선 이들에게 “모든 클래식 곡에는 서사, 즉 이야기가 있다”며 “공연 전 미리 한 번쯤 들어보고 온다면 ‘지루하다’, ‘어렵다’는 편견을 깰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당진챔버오케스트라는 찾아가는 음악회, 저명한 연주자들과의 협연 등을 확대하고, 청소년콘서트 등 클래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연 2회 진행했던 공연도 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감독은 “당진시의 클래식 활성화에 쓰임 받는 단체가 되고 싶다”며 “지역 유일의 오케스트라단이라는 명성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신진도 옛집 벽지서 한시 발견

안흥량 바다 희생자 사실 묘사 수군의 역사적 서정 와 닿아

[태안] 지난 6월 수군 군적부 발견당시 벽지에서는 수군진촌의 풍경과 일상을 표현한 한시도 발견됐는데, 이번에 벽지를 추가 해체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한시가 추가 발견됐다.

한시가 발견된 태안 신진도 고가는 1843년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새롭게 발견된 한시 ‘聞新設開闢四方賢士多歸之’(새로 짓고 잔치를 베푸는 소식을 듣고 사방에서 선비들이 모였다)는 1843년 7월 16일 태안 신진

도 안흥진 수군의 관가(官家)로 사용될 집을 짓고 1844년에 잔치를 베풀어 손님을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한시의 ‘군포를 내라는 조칙이 있는데도, 갑자기 지난밤 보리를 보내어 왔구나’(布詔行令曾如此 忽然昨夜麥秋至)라는 문장이 있어 이 가옥이 안흥진 수군을 관리하기 위해 군포 곡식을 거두어 관리했음을 알 수 있다.

안흥진 수군의 중요 임무 중 하나였던 조운선의 안흥량 통과를 위한 호송 과정에서 발생한 인명의 희생과 이를 비유한 한시도 있다.

‘사람이 계수나무꽃 떨어지듯 하여, 밤은 깊는데 춘산도 적막하다’(人間桂



지난 6월 발견된 수군 군적부에 이어 이번에 추가 발견된 한시.

花落 夜靜春山空, 인간계화락 야정춘산공)라고 하여 수많은 인명이 안흥량 앞 바다에 빠져 희생된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고가(古家)에서 벽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수군진촌(水軍鎭村)의 역사와 서정을 느낄 수 있는 다수의 한시 등이 발견됐다.

김동이/주간태안신문

과수원길 끝에 머문 옛집

그림으로 떠나는

충남 古宅스케치

- 예산 정대영 가옥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에 있는 조선시대 고가로, 1926년 정대영의 조부 정흥모가 지었다고 전하는 건물이다. 건축 당시에는 동향인 7자형 집이었지만 남향 한 부분을 헐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었다고 한다. 현재는 팔작 기와지붕의 一자형 건물로서 정면 7칸 반, 측면 2칸 반이다. 대문에서부터 부엌, 방2칸, 대청, 건너방의 순서이고, 건너방에는 높은 마루가 놓여있다.

부엌 안에는 앞 모서리 쪽에 마루를 낀 1칸 고방이 있고 뒷모서리 쪽에는 반 칸 규모의 시렁이 설치되어 있다.

왼쪽 방 측면에서부터 대청 오른쪽 방 앞까지는 뒷마루가 길게 놓여 있다. 출입문은 부엌 앞으로 연결된 사랑채 부분에 있고 사랑채의 다른 부분은 현재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은 한식 막돌 담으로 둘러쳐졌다.



이곳을 방문했을 때 주변 사과나무에 파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어 과수원 길을 걸어가느라 착각을 일으켰다. 정대영 가옥에 다다르니 너른 풀밭과 연못이 잘 관리되어 있고 집 옆으로 커다란 나무들이 세월을 이야기하는 듯 했다. 집 앞 연못에 노란청포가 피어있어 아크릴로 스케치 해보았다.

글·그림/여행스케치회 홍기욱

맑은 서정과 순수 의지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19) 천안 김명배

유순하고 자유로운 형상화

특출난 현대서정시 모형 제시

“나는 시를 행동하는 사람”



받았다.

여러 문학지의 추천위원,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

한 경력을 지녔지만 마지막 시집에서는 현대시인협회 고문과 한국시인협회 자문위원만 밝혔다.

그동안 ‘청동색 음성’, ‘둘째의 공간’, ‘바람아 바람아’, ‘소리가 있는 풍경’, ‘사랑하기 없기’, ‘이빠진산 두 봉우리’, ‘산도 너스레를 떠는가’, ‘발 그리기’, ‘달팽이 외나무다리 건너기’ 등의 시집과 시조집, 시선집, 시전집을 남겼다. 현대서정시의 특출한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리가 있는 풍경’으로 1987년 녹원문학상을 받았다.

한눈에 성큼 다가선다. 환출한 키에 시원스런 용모다. “나는 평생 시만 쓸거예요. 모든 예술 중에서 최고니까.” 스스로를 ‘시인’이라고 말하던 김명배 시인.

1932년 천안 목천에서 태어나 공주사대를 졸업한 후, 박목월 추천으로 ‘현대시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은 1961년 옥천여고 교사를 시작으로 중등교사를 거쳐 안성산업대 교수로 정년퇴임했다. 강조하지 않는 유순한 시의 생각과 이미지즘의 자유로운 형상화를 통해 자신만의 시 세계를 구축하다 2016년 85세를 일기로 작고했다.

1953년 ‘백양문학회’, ‘능수문학회’, ‘고수원시회’ 등으로 문단활동이 시작됐고, ‘호서문학회’, ‘백수문학회’, ‘천안문인회’를 통해 문학운동에 나섰다. 1975년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를 창립하고 초대지부장을 맡아 ‘천안문학’ 발간을 시작했다.

60여년 넘는 문학 활동을 통해 주옥같은 시들을 쏟아냈고, 술한 후학들을 길러내면서 천안의 긍지로 자리하고 있다. 1985년 천안 시문화상, 1987년 충남도문화상을

교직 퇴임 후, 천안문화원 시낭송회 석상에서 후배들에게 남긴 “지금도 우리 세대, 긴 밤 지새우며 책을 거울로 바라보고, 원고지를 생의 목표로 간직해야 합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다가선다.

시비가 2017년 천안도솔광장에 세워졌고, 오랜 내공과 사유의 무게로 일관했던 그의 문학을 기리기 위해 ‘김명배문학상’이 2018년에 제정되었다.

또한, 시인의 유고작품 35편과 가족, 후배, 제자 시인 등이 추천한 70여 편으로 묶은 유고시집 <아름다운 초대>가 상재되었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일상의 틈에서 피어난 ‘생활詩’

충남도청 김남규 씨

시집 ‘식구들의 수다’ 출간

김남규(58·사진) 시인이 세 번째 시집 ‘식구들의 수다’를 출간했다.

충남도청에서 근무 중인 김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50대 후반을 맞이하며 느낀 사회와 직장 그리고 가정에서 파생되는 갈등과 연대, 자기 회복을 진솔한 문체로 형상화하고 있다. 사회와 가족 구성원이 겪는 마찰이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을 푸는 방식, 나아가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언어를 절충하고 대화법을 익혀가는 과정 등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한 가정의 이야기를 시인의 마음과 눈으로 그려냄으로써 서로를 사랑하는 일, 사랑을 지켜나가는 일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도정신문팀

장르 다른 3인의 이색 기획전

‘설렘, 그 첫 번째 이야기’ 展 9월4일까지 늘봄갤러리서 열려

[당진]사진과 한국화, 서양화 작품을 한자리서 볼 수 있는 ‘설렘, 그 첫 번째 이야기’ 기획전이 오는 9월 4일까지 당진 늘봄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회에는 사진작가 김원근, 문인화·한국화 작가 박주영 그리고 서양화 작가 차은경이 참여한다.

세 명의 작가는 각자 살아왔던 인생 여정도, 작품의 장르도 모두 다르다.

결혼 후에 당진으로 와서 동네의 언니, 동생 사이였던 차은경 작가와 박주영 작가. 마침 경기도 수원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김원근 작가와 고등학교 동창인 차은경 작가가 이들의 연결점이 됐고, 한 데 모여 소통과 교류를 이어갔다.

전시회에는 각자의 방식으로 꽃을 그려낸 박주영 작가와 차은경 작가의 작품들과 스페인 여행 중에 이국적인 모습을 사진으로 찍은 김원근 작가의 사진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정윤성/당진신문



충남인과 독립운동

내포칼럼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 충남 항일운동 중심지 내포
- 세금납부 거부·자결로 일제 항거
- 연합 만세운동의 양상으로 발전
- 학생·농민·노동자 등 적극 참여
- 해외 망명으로 투쟁 전개 지속
- 자주독립정신 전 세계에 알려

충남인의 독립운동은 한말 홍주의병부터 시작된다. 충남인은 의병의 전 기간에 걸쳐 홍성·청양·당진·예산·보령·서산 등 주로 내포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전쟁을 전개했다. 이는 남당 한원진의 학풍을 잇는 남당학과 유학자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면서 위정척사운동을 전개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화지식인들 역시 천안·공주·부여·홍성·서산 등지를 중심으로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일제가 조선에 총독부를 설치하자 충남인들은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자결로써 항의했다. 독립의군부와 광복회가 조직되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 항일투쟁을 펼쳐나갔다.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총대표로, 8도에 대표를

둔 전국 규모의 항일 단체였다. 충청남도 대표로는 홍주의병의 유병장이었던 보령출신 유준근을 비롯해 청양의 안병찬과 안항식, 안병림, 면천의 정주원, 예산의 남규진, 비인의 문석환 등 홍주의병장들이 다수 참여했다.

광복회 충남지부의 활동은 특히 두드러진다. 홍주의병에 참여한 김재정의 장자인 김한종을 지부장으로, 예산과 연기에 곡물상을 거점으로 삼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 활동했다. 충남에서의 3·1운동은 타 지역의 귀감이 되기에 충분했다. 일어나지 않은 시, 군이 없으며 먼 단위 또는 리 단위에서도 봉기했다. 특히 햇불 시위를 벌인 특징이 있는데, 이는 3·1운동을 면과 리를 넘어서 군과 도를 연계하는 연합 만세운동의 양상으로 발전하게 했다.

만세운동은 다양한 주도 계층과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개됐다. 그 과정에서 일제의 탄압을 받아 많은 이가 희생되거나 옥고를 치렀다. 천안의 아우내 장터에서의 만세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920년대 이후에는 청년 학생운동, 농민 노동운동, 사회 문화운동, 종교운동 등이 활발히 전개됐다.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을 깨친 청년들은 1919년 말부터 지역별로 청년회를 조직했다. 청년회는 표면적으로 지식계발과 풍속개량 등을 내걸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자주 독립에 그 목적이 있었다. 3·1운동을 경험한 학생들은 독립운동의 주체로서의 역량이 성숙돼 민족 지성을 대변하는 계층으로 성장했다. 학생들은 동맹휴교, 비밀 결사활동, 농촌계몽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제의 식민통치에 저항했다. 농민들은 소작쟁의, 농민야학, 적색농조운동 등으로 저항했다.

1920년부터 전개된 충남의 소작쟁의는 건수가 전국의 평균치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투쟁적이었다. 노동자들 역시 노동쟁의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신장했고, 동시에 총독부의 폭압통치에 항거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자들의 참여로 노동운동은 노동자 계급의 해방과 동시에 민족 해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실천하고자 했다.

충남인들은 1910년 국망을 전후로, 중국과 일본, 미주 등지로 망명해 1945년 광복을 쟁취할 때까지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만주에서의 무장투쟁에 많은 인물이 참여했는데, 김좌진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김종진 등 충남 출신 후배들을 지도하며 만주지역에서의 독립전쟁을 이끌어갔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인물로는 국무령을 맡아 임시정부를 이끌고 간 이동녕과 상해의거의 영웅 윤봉길이다. 이 외에도 김인전, 이규갑, 김용원, 이종진, 이달, 이상만, 이세영 등이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충남출신 인물들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인들은 한말 의병전쟁을 계승하여 일제강점기에도 치열하게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저지했으며, 김좌진의 무장투쟁과 윤봉길의 의열투쟁은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그 과정에서 충남인들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불법성과 강압성, 그리고 한국인의 자주독립정신을 전 세계에 알렸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서 우리가 오늘날을 살고 있다고 할 때, 이들의 활동상을 구명하고 나아가 명예를 회복하도록 함은 우리 후손들의 몫일 것이다.

시간을 팔고 싶은 귀어인에게

나는 도민이다

②아산 아쿠아포닉스 현상용 대표

체계적 생산 계획이 핵심
첫해 기술 익히는 데 초점
소비자와 만나며 경험해야



내수면 저염분 한다리새우 양식장을 운영하는 아산 아쿠아포닉스 현상용 대표

귀어를 생각할 땐 답답했던 속이 풀렸다. 먹이를 만나게 먹는 새우들을 보고 있으면 내가 배불렀다. 관련 서적을 읽을 땐 예능 프로보다 재미졌다. 이것들은 귀어를 갈망할 때 생기는 귀어병 증상이다. 나는 중증이었다. 이 병을 앓는 사람들에게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소득계획이 구체적이지만 어설포다. 자신이 보기엔 구체적이지만 전문가 눈은 추상적이라 말이다.

귀어를 준비하며 충남 태안에서 친환경새우양식교육을 받던 중 쉬는 시간, 교육생들끼리 얘기꽃이 폈다. 주제는 자신의 양식계획이었다. 나도 얘기에 쫓겼다.

이미 신안에서 새우양식을 하고 계신 형님 한 분이 내 계획을 듣고는 “취미 생활하나”며 웃었다. 속이 짜르르 했다. 취미란 단어가 주는 가벼움이 당시의 내 소득계획 수준

이었다. 그 때부터 잠이 안 왔다. 양식으로 얻는 소득은 1차 소득을 얻는 것이 기본이다. 일반적으로 1차 생산도 계절과 기후에 맞춰 자신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야한다. 농업의 돌려짓기, 섞여짓기처럼 직·병렬적 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요즘 귀어인 대부분이 시작 전에 유통을 고민한다. 그러나 생산품이 없으면 유통도 없다. 그러니 첫 1년은 생산기술을 익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생산량을 적게 하는 것이 좋

다.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진 양식어가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양식은 중장기 시간이 필요하다. 한다리새우는 비교적 짧은 편으로 4-5개월이다.

전기와 사료 등 지출만 있고 소득이 없는 4개월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이다. 잘 키워봐도 문제는 있다. 새우 양식 첫해 하루 종일 양식장에서 새우 사러 오실 손님을 기다렸었다. 1-2kg씩 팔렸다. 시간을 통째로 버리고 있었다.

양식업은 어류와 기술을 가지고 시간을 파는 직업이다. 시간은 우리 일에 필수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잘 정리하고 포장해서 팔아보자는 것이 나의 차별화된 생각이었다. 우선 농업과 연계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짬 시간은 작물 재배에 힘썼다. 이 푼돈들이 전기세와 사료비를 내줬다.

6차 산업이란 말이 나오는 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우리는 생물 전문가들이다. 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생물에 대해서도 잘 안다. 적어도 일반인들보다는 잘 안다. 그야말로 경험이 만든 살아있는 지식들이다. 이러한 지식들을 일반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귀어를 생각한다면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체험과 서비스로 여유 시간들을 함께 팔아보길 권한다.

명예라는 것

나태주의 꽃꽃편지



한국시인협회 회장
꽃꽃문학관장

얼마 전 서울의 한 유력 일간지 기자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은 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의 자존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신문이나 방송에 나가 이름을 알리고 그럴 처지가 아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만큼이라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명예란 것은 스스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해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나는 시인이란 이름도 남이 인정해줘야만 진정으로 시인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다.

그러함에도 있어 명예란 것은 더욱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명예는 그냥 유명함, 명성과는 많이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명성이 단순히 널리 알려진 유명함이라면 명예는 가치 있는 유명함인 것이다. 무슨 가치인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타인을 배려하고 바른 마음, 착한 심성을 지닌 가치이다. 양심에 바탕을 둔 명성이다.

토박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생생현장리포트



한수미
당진시대 취재차장

취재하다 보면 “집이 어디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집’은 지금 사는 곳이 아닌 ‘고향’을 뜻하는 것으로, 이 질문은 “고향이 어디냐”는 것이다.

당진에서 나고 자란 나는 질문에 곧장 태어난 곳과 살아온 곳을 말한다. 당진이 아닌 우강이고, 리 단위까지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당진에서 살고 있다고 대답한다. 늘 저 질문엔 이렇게 답해왔다.

더없이 당연한 답변이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에게 이상하게 보인다. 왜 같은 당진인데 당진은 당진이고 우강은 우강이냐고. 같은 당진 아니냐면서 고개를 갸웃거린다. 하지만 엄연히 당진은 시내권 사람들이며 그 외 읍·면 단위 지역은 다르다. 그게 집을 고향으로 삼은 우리 부류들의 대답이다.

최근 또래 청년들로 구성된 몇 모임에 나갔고 나는 ‘토박이’로 불렸다. 토박이 보기 어렵다는 말도 함께 들었다. 처음엔 토박이라는 어감이 귀엽기도 하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아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토박이가 어찌다가 보기 어려운 존재가 됐는지 씩씩함과 함께 궁금해졌다.

솔직히 말하자.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돈과 사랑과 권력과 명예라고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사랑의 단계에서 그 삶을 멈춘다. 좀 더 나아간 사람은 권력까지 간다.

아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명예까지 가는 사람이다. 하지만 명예는 연기도 힘들지만 지키기가 더욱 어렵다. 명예를 가진 사람은 그 아래 단계를 과감히 버리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에 지대한 손상이 가도록 돼 있다.

나는 조그마한 대로 시인의 명예를 지녔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 아래의 것들은 가능한 한 버리거나 최소화하면서 살고 싶다. 그것이 나의 살길이다. 그러하기 때문에 서울의 유력 언론 기관의 인터뷰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명예야말로 오래도록 사는 목숨이다. 소유의 대상자가 지상에서 살아있는 목숨일 때는 물론이고 지상에서 목숨을 놓은 뒤에도 살아서 힘을 발휘하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명예이다. 명예는 마치 향기와 같다. 향기는 끝은 없지만 존재감이 뚜렷해 멀리까지 가는 힘을 가졌다.

당신, 작으나마 명예를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나머지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라. 그래야 당신의 명예가 온전히 오래 지속된다. 내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나는 당진이 좋았기 때문에 이곳을 떠나지 못했다. 단순히 태어나서가 아니라 시골이 가진 한적한 정서와 바다와 산, 들녘이 어우러지는 자연이 좋았다. 동생들과 함께 논 도랑에서 우렁이를 잡으면 그날 저녁상에 올라왔고, 큰 사고 없이 흘러가는 이 도시가 좋았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졸업하면 내가 일할 곳은 당진이며 돌아가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지워졌다.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었다. 덩달아 도시의 재정 규모는 해를 거듭하며 많아진다. 하지만 우렁이는 잡을 수 없게 됐다. 또 갯벌은 사라졌다. 드넓은 바다를 보기 전에 굴뚝에서 하얀 연기를 뿜어내는 제철소와 발전소가 눈에 들어온다. 때론 가끔이라고 하기에 자주 공장에서 발생하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한다. 미세먼지 수치의 나쁨 수준도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진다. 살 곳을 잃어버려서, 혹은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 토박이들은 고향을 등지고 떠났다.

대대로 그 땅에서 나서 오래도록 살아 내려오는 사람, 토박이. 이제 당진에도 토박이가 30%밖에 없다고 들 한다. 우스갯소리로 넘기던 그 말이 ‘만나기 어려운 토박이’로 불리자 진짜일 수도 있구나 싶다.

하와이도 다른 이에겐 ‘환상의 섬’이라고 할지라도 높은 물가와 집값, 달라진 환경에서 결국 원주민이었던 폴리네시아인들은 살 곳을 잃게 됐다. 토박이들은 어디로 갔을까. 앞으로 당진에 토박이들이 얼마나 남게 될까.

1914년 日帝, 37개→14개郡 비인도적 강제통합

(충청남도 관할 행정)

도정신문 30년 특별기획

충남 근현대사 100년을 말하다



충청남도 도청 문루(1900년경, 공주)

근대 지방제도의 변곡점은 1897년과 1914년이다. 1897년 13도제의 채택에 의해 충청남도가 등장한 해이며, 1914년은 전국 행정구역의 전면적 통폐합이 이뤄진 때다. 1931년 장항선 개통은 해상에서 육로교통 시대를 맞는다. 1932년 충청도청이 공주에서 대전으로, 2013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내포 시대'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연기군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독립한다. 1931년 현충사 중건과 1975년 현충사 성역화, 1967년 난중일기 도산사건, 1979년 10월 26일 삼교호 방조제 준공, 1995년 완공된 서산A·B 간척지(154km²)가 완공됐다. 1971년 공주 무령왕릉 발굴은 백제문화의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제 내포시대를 맞은 충남은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그것은 왕도로서 해양강국을 달성하고 1천500년 전 백제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인 것이다. 충남의 GRDP 규모는 전국 3위, 1인당 GRDP 규모는 전국 2위, 수출액 규모 전국 2위, 무역수지 1위로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바야흐로 내포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충남도정신문은 올해 창간 30돌(1990년 12월15일 창간)을 맞아 충청남도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를 ▲일제 강점기 충남 ▲충남의 독립운동 ▲한국전쟁 ▲산업발전 ▲선거와 민주화 ▲백제 유산 등 여러 주제로 나눠 전문가 등의 자문과 집필로 시기별, 분야별로 토크본다.

/이찬선 도정신문팀장 chansun21@korea.kr

①1914년 지방행정개편과 충남

조선 충남은 “나라의 곳간” 불려져 “내포가 흉년들면 나라가 걱정” 쌀·소금·목재는 나라살림 기둥 조선시대 나라 경제 떠받쳐

조선 시대에는 세간에 “조선의 부는 삼남(三南)으로부터 나오고, 삼남의 부는 대부분 전주 일대의 평야와 충청도의 내포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었다. 현재 충청남도청이 자리잡은 내포는 서울, 경기도와 뱃길로 이어져 있고, 땅도 기름져 예로부터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는 나라님도 인정하는 것이어서 조선 후기 국왕 숙종은 비변사 당상들을 모아놓고 말하기를 “삼남 가운데 내포는 실로 우리나라의 곡물이 모두 생산된다고 일컬어지는 곳”이라고 하면서, 내포가 흉년이 들면 나라 전체가 걱정에 빠져든다고 언급했다.

그 옛날 충청남도는 쌀뿐만 아니라 소금과 목재의 주생산지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오늘날 태안반도라고 일컬어지는 지역 일대는 거북선이나 관옥선을 만들 때 쓰는 나무의 주 생산지였다. 조선 시대에는 사람이 생존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소금을 생산해내는 곳도 이곳 충청남도를 빼면 그다지 많지 않았다. 옛 사람들은 해수직자법(海水直煮法)이라고 해서 바닷물을 가마솥에 넣어 직접 끓이거나 높은 염도의 간수를 만든 다음 이것을 가마에 넣어 끓이는 방법으로 소금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금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땀값이 많이 필요했는데, 삼남 지역에서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 땀값에 안성맞춤인 나무를 갖춘 곳은 우리 충청남도가 유일하다시피 했다.

이러한 까닭에 나랏일에 종사하는 관료들과 식자층들은 우리 충청남도 지역에 흉년이 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면 근심에 휩싸였다. 관세인들이나 왕자, 공주들은 충청남도에 전답을 마련하거나 소금 생산지를 만들어 부를 쌓는 것이 일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그만큼 충청남도는 나라 살림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것이다.

나라의 기둥이자 곳간이라고 일컬어지던 충청남도의 위상은 일제 강점기에 들어 급속히 떨어졌다. 현재와 같은 틀의 충청남도가 만들어진 것은 1914년 지방제도 재편 때의 일이다. 당시 일제는 전국적으로 행정제도를 개편하면서 몇 개의 군을 없애고, 면도 서로 합치거나 분리해서 지금과 비슷한 행정구역을 만들어 놓았다. 또 각 도에는 도청이라는 것을 세워두고



1900년대 논산 강경시장 모습.

조선총독부의 지령을 단순히 따르기만 하는 식민 관료들을 배치했다.

1894년 갑오개혁 때 37개 군 개편 日, 통치 용이한 14개로 축소 식민통치와 효율적 수탈 목적 각지 번성하던 재래시장도 쇠퇴

일제에 의해 지방제도가 ‘개편’이 이루어질 당시는 서슬 퍼런 무단통치 시기였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국인들의 생활권이나 거주 편의성을 고려해 행정구역을 획정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식민지배에 유리하게끔 도와 군의 경계를 그어 놓았다. 그 결과 충청남도 에 속하는 군의 수가 크게 줄게 되

었다. 조선 왕조가 아직 명맥을 유지하고 있던 1894년 갑오개혁 때, 전국의 행정 구역을 다시 확정하는 사업이 시작되어 도합 37개 군을 관할하는 충청남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일제는 37개 군을 남겨 두게 되면 행정 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지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되도록 적은 돈으로 식민지 조선을 지배하고 싶어 했던 일제는 이 37개 군을 서로 합쳐 공주군, 홍성군, 보령군, 서천군, 서산군, 당진군, 예산군, 아산군, 천안군, 논산군,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연기군 등 14개 군으로 재편해 버렸다. 요컨대 1914년 지방제도 재편은 그저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시행한 것에 불과했던 것이다.

일제에 의하여 갈기갈기 찢긴 충청남도는 예전의 명성을 찾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서울로부터 대전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면서 선로 인근 지역이 집중적으로 개발되었고, 상당량의 쌀이 일본으로 수출됨에 따라 항구도시인 전라도의 군산과 목포 인근의 전담이 크게 개발되었다. 이로써 나라의 곳간이라고 일컬어지던 내포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게 되었으며, 충청남도 각지에 번성하던 재래시장도 몰락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일제가 이와 같이 행정 편의와 식민 지배의 효율성을 위해 행정제도와 국내의 산업 기반을 재편하게 되면서 충청남도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보다 풍요로운 삶을 바라는 충청남도인의 의지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충청남도는 저마, 견 생산지로 이름나 있었으며, 금과 석탄 생산량도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3위를 오르내릴 정도로 많았다.

일제의 억압에도 독립의지 활활 ‘내포시대’는 ‘나라곳간’의 기회

일제 강점기 당시 충청남도는 식민 지배 당국에게는 ‘눈에 가시’라고 할 정도로 거북한 지역이었다. 김좌진, 한용운, 윤봉길, 유관순 등의 수많은 독립투사가 배출된 곳일 뿐 아니라 척왜의 기치를 높이 올렸던 동학의 접전지도 이곳 충청남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일제는 충청남도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고등보통학교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고, 연이은 교육기관 확충 요구도 묵살하곤 했다.

해방 이후 우리 한국의 역사는 다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혁명적 변화를 경험하였다. 최근에는 충청남도와 접한 세종시에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고, 내포에 충청남도가 이전하면서 충청남도가 가지던 ‘나라의 곳간’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찾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근현대 충청남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이 지역에 갖고 있는 위상을 다시금 깨닫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마음가짐을 다져야 할 것이다.

/유용혁(공주대 명예교수)

충청남도 연혁

- 1897. 충청남도 개도
- 1937년 37개 군에서 14개 군으로 통폐합
- 1932.10.1 도청, 공주에서 대전으로 이전
- 1963.1.1 전북 금산군을 충남에 편입
- 1989.1.1 서산읍, 시로 승격 및 태안군, 서산군에서 분리
- 1990.2.1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설치
- 1995.1.1 공주시·군, 대전시·보령군, 양양시·아산군, 서산시·군 4개 시로 통합
- 1995.5.10 천안시·군 천안시로 통합
- 1996.3.1 논산군 시로 승격
- 2003.9.19 계룡출장소, 계룡시 승격
- 2005.3.18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공포(연기군 남면·금남면·동면, 공주시 장기면·반포면 일원)
- 2006.2.12 도청이전지 결정(홍성군 홍북면·예산군 삼교읍)
- 2012.1.1 당진군이 시로 승격
- 2012.7.1 연기군과 공주시 장기면·의당면·반포면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격 분리
- 2013.1.2 도청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



1914년 충청남도 지도



충청남도 개도 100주년을 맞아 설치한 공주 웅비탑



광복절에 충남 국화 일본 수출길 올랐다

예산, 30만본 日수출 한창
태안, 연말까지 10만본 수출

[예산·태안] 광복절에 즈음해 태안과 예산의 국화 수 만 본이 일본에 수출됐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7, 8월 현재까지 8만6000본을 수출한데 이어 앞으로 9월 중순까지 스프레이 국화 30만본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다.

예산군 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인 국화는 도내 국화 재배면적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4만 본을 일본에 수출했다.

현재 수출 중인 밀키스타, 홀릭, 글로리핑크 등 국화 6품종은 모두 국내 육성 품종으로 일본 바이어로부터 우



태안군 국화연구회 회원이 일본에 수출할 국화를 수확하며 웃음을 짓고 있다.

수한 품질을 인정받아 해외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국내 품종 국화를 해외로 수출하는 지역은 전국에서 예산군이 유일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베트남 등의 기존 국화 수출국들의 수출 감소와 일본 홍수 등 생산량 감소로

국내 국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태안군에서도 국화가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일본의 국화 주 수요기인 ‘오봉절(8월 15일)’을 맞아 태안군 국화연구회가 주축이 돼 스프레이 국화 5만 2000본을 일본에 수출한다.

이번에 수출되는 스프레이 국화는 품종 고유의 화색이 변하지 않는 품종으로 절화 수명도 길어 일본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다.

이번 수출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국화재배농가에 활력을 주고 국화 물량 조절에도 상당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태안군은 일본의 추분절(9월 22일)과 연말에 5만 본의 국화를 추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도정신문팀



장병 여러분 고마워요 [아산]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아산에서 국군 장병들이 복구 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203특공여단(여단장 김광현), 32사단 아산대대(대대장 박경운)의 국군 장병이 700여명의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마을주민들은 “수해를 입어 가슴이 먹먹했지만 이렇게 군 장병들이 열성적으로 도와주어서 기운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아산시 제공

아산 일부 경로당 운영 재개

경로당 117개소 운영 재개

폭염에 노인 휴식 공간 제공

[아산] 아산시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관했던 경로당 529개소 중 운영을 희망한 117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을 재개했다. <사진>

이번 운영 재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쉼터와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진행됐다. 향후 방역지침 준수 하에 운영 경로당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는 운영 재개 전 관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경로당 방역을 완료하고 체온계,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했으며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했다.

경로당 이용자들은 방문대장을 작



성해야 하며 1m 이상 거리두기, 취사 및 식사 금지,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산시 제공



서천 송림에 맥문동꽃 8월 활짝... 무더위 힐링 명소 [서천] 서천군 장항송림산림욕장에 맥문동꽃이 활짝 피기 시작했다. 장항송림산림욕장 맥문동은 8월 초에 개화해 하순에 만개 9월 중순에 꽃이 진다. 송림산림욕장은 바닷바람과 모래 날림을 막기 위해 조성된 70년생 해송 숲과 스키이워크, 노을이 아름다운 서해와 갯벌이 한데 어우러져 매년 백만여 명이 찾는 관광 명소다. 약 19만㎡(5만 7500평)의 소나무 숲에 600만 본을 식재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맥문동 꽃밭을 자랑하고 있다. /서천군 제공

동서리 석상, 망태할아버지?

향토지 기록-민간 구전 엮갈려
역사·설화 스토리텔링이 해법

[예산] 예산의 명소중 하나인 예산군이 대흥 동서리 ‘석상’을 두고 미륵불인지 망태할아버지인지 정체성 논란을 빚고 있다.

군지와 면지 등 향토지에는 ‘미륵불’로 기록한 반면, 민간에선 ‘망태할아버지’라고 구전되고 있는 것.

주민들에 따르면 옛부터 ‘망태할아버지’로 부르던 이 석상은 마을 수호신으로 전해 내려온다. 현재 석상 앞에는 주민과 마을의 상징적인 망태할아버지상은 매년 2월 초하루 주민 모두 마을제를 올리며 안녕을 빌던 관공

명소였다는 것. 하지만 향토지에는 미륵불로 기록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1937년 간행한 ‘예산군지’는 ‘대흥공립보통학교 교정에 석불 일좌(一座)가 있다. 원래는 송림사 유적에서 본 면사무소로 옮긴 것을 교정으로 안치했다’고 나와 있다.

한 향토사학자는 “고려시대 미륵불이다. 이성계가 고려의 불교문화를 다 없앨 때도 살아남은 게 대흥군 송림사인데, 거기 있던 미륵불이 옮겨진 것을 망태할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오류며 바로 잡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지역사회와 함께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동서리석상 미륵불

설화가 공존하는 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두레/무한정보

중·고 골프사 31년만에 새로 쓰다

홍성고 부설 방통고 한희림
11언더 61타 최저 기록
최종 136타로 대회 준우승

[당진] 한국중고골프연맹 31년 역사에서 역대 최저타가 탄생했다. 지난 달 제31회 올포유·레노마 전국 중·고등학생 그린배 대회에서 11언더파를 기록한 한희림 학생이 그 주인공이다.

홍성고 부설 방송동신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희림 양은 본선 둘째 날 11언더파 61타를 기록하며 그는 최

종 136타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희림 양의 언더파 기록에 경기위원들을 깜짝 놀랐고 상대선수들도 허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것.

이날 기록한 11언더파는 한국중고골프연맹 31년 역사에서 처음이다. 무안 CC 공식대회 아마추어와 프로 통틀어서도 최저타다. 희림 양은 “7언더를 목표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대회에 집중했는데 목표 기록보다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가족들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한희림 학생

한 양은 “국가대표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훗날 프로 선수가 돼 세계적인 여자 프로골프 경기대회인 LPGA 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게 꿈이에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임아연/당진시대

고려의 평안 기원, 양령리 향나무

새로 배우는 충남학

918년 고려 기원과 탄생
1106년 충청도 탄생 기원
치성 드리면 잉태 의미도



양령리 향나무

우리 충남에는 역사와 함께 한 나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918년 고려 개국 후 고려시대의 평안함과 안녕 속에 그 기원을 담고 있는 나무가 있다. 천안 성환군 양령리 향나무이다.

굵은 외줄기가 지상 27m 높이에 3줄기로 크게 갈라졌으며 높이는 9.5m, 가슴높이의 둘레는 3.05m정도이다. 수령은 약 800년인데, 1200년 전 대흥수가 났을 때 어디선가 씨앗이 떠 내려와 이곳에 정착했다고 구전으로 전해진다. 1106년 양광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는 지명의 탄생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겼던 나무로, 자식을 못 낳은 아내가 향나무에 치성을 드리면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새로운 충청도를 이끌어갈 인물의 탄생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60여 년 전 인근 민가의 화재

로 가지가 일부 고사되었으나 비교적 양호한 반타원형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며 생육상태도 매우 좋다.

향나무는 측백나무과에 속하는 침엽목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상나무, 또는 노송나무라고도 불린다.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향나무는 바늘모양과 비늘모양의 두 종류가 있다. 향나무의 심재는 진한 향기가 나 이곳을 이용해 제사를 지낼 때 향료로 사용했다.

전국적으로 향나무 천연기념물은 약 13개가 있는데, 천안 양령리 향나무는 12번째로 세종연기 봉산동 향나무에 이어 2000년 12월 제427호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매년 정월 보름에 동제를 지내는 마을의 수호목으로 학술과 민속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재화(천안시 동남구)



포도 1톤 수확 VS 천송이 포도... “엄청나네”

보령·줄기 100m, 1톤 수확 깜짝
천안·1000송이 주렁주렁 ‘어미어미’

충남에 이색 포도나무 화제
입소문에 체험객 방문도 이어져

[보령·천안]길이 100m가 넘는 줄기에서 연간 1톤의 포도를 수확하는 가하면, 무려 10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포도나무가 있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령시는 남포면에 위치한 머드포도원에서 관리 중인 청수 품종의 포도나무 한그루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들

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청수 품종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시벨 9110과 힘로드 품종을 교배 조합하여 지난 1993년 개발됐으며, 머드포도원은 지난 2008년에 심어 관리해왔다.

특히 2008년 현재 위치에 식재한 이후 주변의 다른 포도나무보다 자라나는 기세와 상태가 강해 해당 나무만 관리해왔는데, 매년 3~4m이상 자라나 현재는 줄기만 100m 이상 늘어져 있으며 파골라를 설치해 유지관리해오고 있다.

이 포도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것으로(일반 포도나무 3m) 인정받았으며 농촌 팸파티와 농촌체험의 명소가 되고 있다.

그러기하면 천안의 장수포도농원에 한 나무에 무려 천 송이의 열매가 매달린 ‘천송이 포도나무’가 달콤함을 뽐내고 있다.

당도는 17~20도로 단맛이 강하며 신맛과 떫은맛이 적다. 또 즙이 많고 육질이 단단하고 독특한 향이 있고 씨가 없다.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껍질째 먹을 수 있다.

김미숙 대표는 “나무의 신진대사를 관장하는 호르몬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농장에서는 포도체험수확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체험객들을 맞고 있다.

/도정신문팀



줄기만 100m 포도나무 보령 머드포도원에 줄기만 100m, 무게가 1톤인 이 포도나무는 줄기가 전국에서 가장 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안 최초 우럭 가두리 양식 성공

우럭, 농어 체중 250% 월등
천수만 고수온 양식 대안 입증
‘무항생제’ 브랜드화 가능성

[태안]전국 최초의 자연산과 같은 ‘무항생제 우럭 양식’ 가능성이 태안에서 입증됐다.

태안군이 서해안 최초로 시도한 ‘중층 침설식 가두리’ 양식 시범사업이 성공한 것이다. 라우식 안면읍이장단협의회장은 “40년 넘게 바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적적인 장면을 접

하기는 처음이다”며 “이 우럭은 자연산과 똑같다. 이제 고수온으로 매년 고생하는 천수만의 양식장들의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로 침설식 가두리에 생 사료를 던지자 30cm가 넘는 우럭들이 서로 먹이를 먹으려고 몰려들었다.

군은 2018년부터 천수만 양식장 고수온 피해 대안마련을 위해 수온이 급상승하지 않는 방포항에서 7km 떨어진 내파수도 인근 1만5000㎡ 면적에 중층 침설식 가두리(6*6*6m) 4개를 설치했다.

이곳에서 양식된 우럭은 같은 양식



서해안 최초 ‘중층 침설식 가두리 양식’에 성공한 무항생제 우럭

기간 대비해 월등했다. 실제 포항 대고주 어장은 29.6cm에 비해 태안 내파수도는 32.0cm, 평균 체중도 포항 590g, 태안 내파수는 808g으로 입식 대비 체중 증강율이 250%로 월등한 결과를 나타냈다.

신문용/주간태안신문

여름공주축제 ‘온가락 페스티벌’ 개막

8월21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관람객 수용인원 20% 입장

[공주]공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일간 고마 아트센터 일원에서 2020여름공주 ‘온-가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음악으로 신나는 여름공주를’이라는 주제로 클래식과 밴드, 가요 등 낭만과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은 저녁 7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진행되며 첫날에는 공주시

충남교향악단이 우리에게 익숙한 클래식 멜로디를 보다 재미있게 해석한 ‘편편클래식’으로 축제의 서막을 올린다.

이어 국내·외 정상급 협연자들의 무대와 함께 그룹 부활, 박완규, 변진섭 등 유명 가수들의 공연이 흥을 이어간다.

이틀째인 22일에는 백제가무회, 최선무용단의 무용을 시작으로 공주를 주제로 한 공주노래 창작곡 페스티벌이 색다른 음악의 세계로 안내할 예정이다. /공주시 제공

맛있게 매운 청양고추 온라인 기획전

청양산 건고추 사전예약

[청양]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코로나19로 취소돼 올하는 ‘온라인 기획전’이 선보인다. <사진>

온라인 기획전은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농사랑, G마켓, 옥션, 11번가 등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인기가 많은 건고추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군에서는 2020년 청양산 건고추를 사전예약으로도 주문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사전예약 주문은 오는 25일까지 전

화(041-940-2302~4) 또는 이메일(foseha@korea.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자에게는 무료배송 서비스와 청양의 우수농산물을 추가 제공

/청양군 제공



하여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청양산 건고추는 기획전 게시일과 같은 26일 임시개장 예정인 청양 먹거리직매장(대전 유성구 학하동 714-1)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스산 사투리’로 오디오북 완성했다

시민 성우 18명 제작 참여

한국전쟁 시절 서산마을 그린

‘열두 살 그 여름’ 동화 오디오북

[서산]서산시민들의 목소리로 녹음한 오디오북이 완성돼 관심을 끌고 있다.

서산문화도시사업단은 서산컬처 프로젝트의 세 번째로, 고윤미 작가의 동화책 ‘열두 살 그 여름’을 시민들이 성우로 직접 참여해 오디오북을 완성한 것.

오디오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업단의 SNS를 통해 차례로 공개되고 있다.

최근 표준어 중심의 교육정책과 젊은 층의 외래어 사용 등으로 인해 사투리의 사용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특히 충청방언의 사용빈도는 5.8%로 매우 저조한 상황.

이에 따라 서산의 사투리를 적극 보존하고 동화를 통해 사투리의 부정적 인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나선 것. 소위 ‘스산말’로 된 첫 번째 오디오

북의 원작은 지역출신 고윤미 작가의 동화 ‘열두 살 그 여름’으로, 한국전쟁시기 서산지역의 한 마을을 배경으로 전쟁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투리 대사를 통해 잘 담

아내고 있다. 시는 공모전을 통해 현재 서산에서 살고 있고 또 서산사투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시민성우 19명을 선발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성우

들은 당시 마을 사람들의 구수한 사투리를 오디오북에 담는데 성공했다.

앞서 사업단은 서산의 문화자산들을 기록하고 널리 알리는 서산컬처 프로젝트를 지속해 왔는데 첫 번째 결실이 ‘서산 원도심 이야기’(2018년)이고 두 번째 ‘서산의 중고제 명창들’(2019년)에 이어 이번에 서산어(語)의 보존이라는 취지로 “열 두 살 그 여름”을 오디오북으로 만들어 드디어 8월부터 시민들에게 알리게 된 것이다. /도정신문팀

서령고 카누, 전국대회서 종합우승

[서산]지난 달 개최된 ‘제19회 파로호 배 전국카누경기대회’에서 서령고등학교가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고등부 종합우승을 차지

했다. C1-200 노경일 군 은메달, C2-200 이지성·황민규 군 은메달, C1-1000 노경일 군 금메달, C2-1000 이지성·황민규

군 금메달, C2-1000 이재용·이태열 군 동메달, C1-500 노경일 군이 금메달을 각각 거머쥐었다.

김영화 서령고 교장은 “훌륭한 성적을 거둬 서령카누의 저력을 보여준 선수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병욱/서해안신문

천안시, 재난심리회복 ‘안심버스’ 운영

이재민 안정 돕는 심리상담

[천안]천안시가 수해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심리회복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버스’를 운영한다.

천안시는 서북구와 동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건강전문요원, 사회복

지사 등이 직접 수해 현장을 찾아 심리상담, 재난척도검사, 우울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이재민들이 심리 지원을 위해 최적화된 공간에서 쾌적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에 한 대밖에 없는 ‘안심버스’를 국가트라우마센터에

요청해 운영중이다.

찾아가는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인 안심버스는 간단한 검사를 통해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 불안 등 상담과 교육을 실시한다.

안심버스를 활용한 심리상담은 지역별 형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공휴일을 제외하고 21일까지 운영된다.

/천안시 제공



스산 사투리 오디오북 제작의 성우로 참여한 서산 시민들



장애 딛고 희망 노래하는 '국악요정'

공주 이지원 양, 충남 최초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 쾌거

장애예술인 활동 10년 간
공연 350회·수상만 100여회

'장애인 국악요정'으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우리 가락의 멋을 전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고 있는 한 중증장애인이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뽑히며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충남도는 천안 나사렛대에 재학 중인 이지원(사진) 양이 도와 공주시의 추천을 받아 제 24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올해의 장애인상은 1996년 우리나라의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 수상을 계기로 제정된, 장애인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꼽힌다. 매년

사회 각 분야에서 장애인 인권 향상, 장애인 복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등을 3명씩 뽑아 대통령상과 상금을 수여한다.

이지원 양은 중증장애 예술인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재능 기부 활동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 ▲한국 장애예술·국악의 우수성을 세계에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으며, 충남 첫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2000년 선천성 대동맥 협착 심장질환을 안고 태어난 이 양은 이듬해인 2001년 중증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 장애로 인해 걸음이나 언어, 신체 발달 등이 또래에 비해 늦었지만 그의 부모는 이 양이 음악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울다가도 음악이 들리면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

이 양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공주 박동진판 소리전수관에 들어갔고, 판소리의 긴 가사도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외우는 기적 같은 재능을 보였다.

중학교에 진학해서는 판소리 대신 흥이 많

은 경기민요로 전공을 바꿨다. 공주여고 특수반에 진학한 뒤 장애인대회에 참가하며 본격적인 장애예술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양은 장애인 단체와 노인복지센터, 특수학교 등에서 재능기부 공연을 펼치며 희망과 용기를 전했다. 우리나라를 대표해 일본·태국·오스트리아 등 해외 공연도 가졌다. 소리꾼으로 활동해 온 10년 동안 350회가 넘는 공연을 펼쳤고, 100여 차례 걸쳐 상을 받았다.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2017년 제5회 대한민국 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어워즈 심사위원장상, 문화체육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2018년 일본동경골드콘서트 15주년 특별상, 지난해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장애총상임대표상 등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와 한국 장애인문화협회, A플러스(+)장애인문화예술축제, 좋은이웃중앙회 등의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다.

/장애인복지과 041-635-4271

8명 다둥이 엄마에서 수필작가로

‘한현숙’씨 ‘참새 살리기’ 출간
사회문제를 동화로 풀어내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시도도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25년 전 첫째를 낳은 한현숙(53·사진) 씨는 8명의 자녀를 가진 다둥이 엄마다. 8명의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인생의 절반을 육아에 시간을 보냈다. 어느날 집 밖 세상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한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육아를 해야 했고 재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다.

8명의 아이를 키우다보면 시간도 부족하지만, 재정적인 부담도 컸다. 더구나 오랜 육아로 발병한 디스크 재발로 오래 앉아있기 어려워 난관에 봉착했다. 하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아이들을 키우며 가장 많이 읽고 접했던 동화책을 직접 만들고 싶은 욕심을 냈다.

현숙 씨는 8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녀를 향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생각을 동화를 통해 풀어냈다. 일상생활 속 이야기, 여행 이야기, 방송을 보며 느낀 사회문제를 글로 써내려 갔다.

글쓰기를 통해 한현숙 씨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산다. 수필 작가의 삶을



살아가며, 지난해부터 충청남도 도민리포터를 그리고 지난 2018년부터 당진시청 소셜미디어리포터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당진어울림여성회 손만세(손으로 만든 세상)에서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글쓰기와 다른 재능들을 기부하고 있다.

“앞으로는 웹툰도 배워서 재밌는 이야기와 그림을 그려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현숙씨는 도전이 무섭지 않다.

“무조건 뛰어들어야 해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현숙씨의 응원이다.

정윤성/당진신문



지난달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제26회 KBA한국권투협회 신인 발굴 전국대회에서 활약한 태안 '5310복싱클럽' 선수들이 상패를 들어보이고 있다.

태안 돌주먹들 일냈다

신인 발굴 전국대회 출전한
'5310복싱클럽', 6명 금메달
군 대표 선수로 활약 기대감

[태안] 제2의 박종팔을 꿈꾸는 태안 돌주먹들이 한국권투협회가 주최하는 전국대회에서 7명이 출전해 6명이 금메달을 따는 기염을 토했다.

태안의 5310복싱클럽 소속 7명의 선수들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일산의 브라더 복싱체육관에서 열린 제26회 KBA한국권투협회 신인 발굴 전국대회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초등부 조운(화동초 5) 선수와 중등부 이가온(태안중 1), 최선현(태안중 1), 김동하(안면중 2) 선수, 일반부 송재욱, 전범수 선수가 돌주먹을 과시하며 금빛 주먹을 날렸다.

전국대회에서 우승 경험을 쌓은 중등부 선수들은 태안군을 대표해 차기 도민체전에 군 대표로 출전할 기대다.

이들을 지도한 오세열 5310복싱클럽 관장은 “겨우 한 두 달 정도 밖에 복싱을 배운지 않은 경험도 없는 선수들이어서 긴장할 줄 알았지만 의외로 선전했다”고 말했다.

이민령/주한태안신문



'신기록 넘어, 가자! 도쿄로'

[서천] 남자 높이뛰기 국가대표 우상혁(24)이 지난달 열린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인 2m27을 뛰어넘고 있다. 우상혁은 이 대회서 1위를 차지, 대회 6연패를 달성했다.

/서천군 제공



사서들의 서재



(임승규 외, 한빛비스)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세계

언제나처럼 여름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 여름이 다소 예전 같지 않다. 덥고 습한 환경 속에서도 각자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뒤흔든 지 여섯 반년이 넘어가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이번에 소개할 '포스트 코로나'는 각 분야 전문가 7인이 코로나가 만든 변화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한국형 팬데믹 솔루션의 집대성이라

볼 수 있다.

이 책에서 국내외 경제, 부동산, 사회, 의료, 교육, 정치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해석과 전망을 통해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지 그리고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제시해준다.

코로나19는 국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대량실업과 주가 폭락, 막대한 재정지출을 낳게 하며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

사회적으로는 '비대면(untact)'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면서 온라인 강의, 재택근무, 화상채팅 등 과거 일부분야에서만 작동하던 시스템이 이번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 및 시범 운영되며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지도 모를 단편적인 미래를 보여 주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계 또한 유튜브와 넷플릭스, 무관중 경기 진행 등 기존에 누리던 문화생활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며 이 와중에도 문화적 향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며 그 모양새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그동안 뉴스와 언론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이 책이 새로운 내용으로 다가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이다. 코로나가 만든 변화를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책 '포스트 코로나', 앞으로의 미래를 함께 대비하는 안목을 키우는 데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유재열
충남도청
행정자료실 사서

독립운동의 고장 충남 올해 청산리전투 100주년

홍성 출신 김좌진, 대대적 기념 사업

조형물·국제포럼·역사탐방 등 다채

113억 투입 김좌진 생가지 성역화 조성

한·중·일 역사 학술포럼 온라인 생중계

충남도와 홍성군은 올해 청산리전투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기념사업을 진행한다.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공과를 올린 대첩으로 기록된 청산리전투의 역사적 의미와 김좌진장군, 독립운동에 앞장선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기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1920년 10월 발발한 청산리전투는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이면서 일본군에게 승리한 싸움이다. 특히 청산리전투를 이끈 백야 김좌진장군은 홍성 갈산면에서 태어났으며,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로 꼽힌다.

우선 홍성군 갈산면 김좌진장군 생가지 백야교 등 관내 주요교량 6곳에 청산리 대첩 100주년 홍보깃발 거리를 조성하고, 홍성군청 앞 김좌진 조형물을 설치했으며, 충남도서관 등

주요거점 3곳에 홍보탑을 설치했다. 또한 홍보영상을 제작·상영해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

온라인국제학술포럼, 전국 청소년 연극제, 역사탐방 및 낭독콘서트 등 국민 참여 행사를 마련한다.

이중 전국 청소년 연극제는 청산리대첩 역사적 의미, 김좌진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전국으로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국 고등학교 대상으로 연극 대본 공모를 진행해 8개팀을 선정했으며, 오는 9월 19-20일 청운대학교 공연장에서 열린다. 코로나19사태로 연극대회 규모를 축소하고 무관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국제학술포럼은 10월 17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한·중·일 역사 학술포럼으로 진행되며, 역사탐방 및 낭독콘서트는 10월 19일 홍성군 일원에서 도내 중고등학생 20여 명 대상으로 열린다.

또한 10월 25일 김좌진장군 생가지 일원에서 추모제가 진행된다. 매년 10월 25일 진행하던 추모제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는 취소하고, 추모제, 헌화만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좌진장군 생가지 성역화 사업을



편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비, 도비, 군비 등 사업비 113억 원을 들여 어린이 생태놀이장 등 편의시설과 승마장, 국공장 등 체험시설, 수변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외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청산리전투 역사교육 교재 편찬, 다큐멘터리 제작, 국제학술포럼 등 전시·문화 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도와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악회, 뮤지컬공연 등 대규모 밀집행사는 취소·변경하여, 11개 사업을 진행 중이고 1개 사업을 완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2020년은 청산리전투 100주년일 뿐만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전쟁의 해’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큰 획을 그은 전투로 범국민적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기념주간(10월 12-25일)을 선정해 범국민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홍성군 갈산면에서 태어난 백야 김좌진 장군은 청산리전투를 이끈,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로 꼽힌다. 청산리전투는 한국 무장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공과를 올린 대첩이다. 충남도와 홍성군은 청산리전투에서 공을 올린 김좌진 장군과 순국선열들의 항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일제 교육탄압에 맞섰던 학생 애국자

금산 출신 이일남 애국지사

일본인 교장의 핍박에 항거

비밀결사단체 ‘우리회’ 조직

독립군에게 자금 전달 시도

“저는 항일운동에 있어 단지 조력자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충남도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 이일남(96) 옹은 일제강점기에 펼쳤던 자신의 독립운동을 돌아보며 자신을 낮췄다. 그의 독립운동은 광복 3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의 나이인 열여덟 살에 시작했다.

이일남 애국지사가 1942년 6월 전주 사범학교 재학 시 일제의 민족말살정

책으로 일본인 교사들의 교육 탄압이 자행됐다. 일본인 교장이 한국 학생들에게 걸핏하면 ‘조선놈’이라며 핍박할 때마다 학생들과 단적으로 항의했다. 이일남 애국지사는 “일본인 교장이 있었는데 깜빡 졸면 ‘조선놈~ 조선놈’ 해서 거기서 반항심이 났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일본인 교장의 노골적인 민족차별교육에 분개해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과 함께 비밀결사단체인 ‘우리회’를 조직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며 항일활동을 전개했다.

1943년 12월에는 만주에 거점을 확보, 만주독립군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전달하려고 김학길, 박완근 등 동지생들을 규합해 독립군과 접선을 시도하려 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이에 만주의 실정을 알리기 위해 귀국했다.

귀국 후 국내동지와 연결하는 한편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1945년 1월 충남 금산사방관리소 인부로 취업했다가 발각돼 일제 헌병대에 체포됐다.

같은 해 전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불경 및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이 애국지사는 이 과정에서 일본 헌병들의 잔혹한 고문을 견뎌내야 했다. 그는 “(고문 때문에) 장질부사(장티푸스)를 세 번 앓아 기절했다”며 “감옥에서 누가 데리고 왔는지,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했다. 1945년 8월 광복을 맞으며 출옥했다.

정부는 그의 업적과 항일 정신 등 공훈을 기리어 1986년 대통령표창에 이어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이일남(사진 오른쪽) 애국지사와 부인 서재영 씨



사대문형무소에 마련된 이일남 지사 발자국 동판

道, 독립유공자·유족 예우 앞장

의료비·버스요금 지원 확대

특별위문 실시, 상징물 제작도

충남도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우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의료비 지원 확대, 버스요금 무료 혜택 등 보훈 복지를 확대했으며, 특별 위문 실시와 독립유공자 초청 만남의 날을 통해 예우 증진 분위기도 조성했다.

도는 먼저 지난해 독립유공자 의료비를 1억 7200만 원으로 늘려, 지원 대상을 수권자 본인 336명에서 배우자(164명)까지 총 500명으로 확대 적용했다.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을 도내 지정병원에서 충남·대전병원으로 확대

시행했다.

신규사업으로는 독립유공자(유족)가 병원치료나 건강검진 시 맞춤형 119이송예약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유공자 정보를 119 시스템에 등록, 지역 소방서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3.1절·광복절 특별 위문을 실시하고 있고, 이들을 초청하는 만남의 날 행사를 매년 정례화해 기념공연, 오찬 등을 진행한다.

올해 7월부터는 버스요금 무료혜택도 대폭 확대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75세 이상 독립유공자 유족들에게 버스비를 지원한 데 이어, 지난 7월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대상 범위를 늘렸다.

앞서 지난해 6월에는 독립유공자 316가구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서비스를 제공했다. 소화기(317개)와 단독경보형 감지기(464개)를 무료 설치했으며, 전기·가스 등 화재예방 교육 실시로 유공자 및 유족 안전사고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도는 이밖에도 유공자들의 독립운동 정신 확산을 위한 환경조성과 콘텐츠 개발도 실시했다.

지난해 내포신도시에 항일독립운동 여성상 ‘혁명전야’를 건립한 데 이어 지난 4월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 독립운동가 5인의 조형물을 제작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순국선열·호국영령을 기리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현충시설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한 조경사업의 일환으로 보훈공원 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소나무를 식재했다.

/주재현 scottju@korea.kr

모든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실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민방위교육은 전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

기 준 1~4년차 민방위대원 - 4시간, 집합교육
5년차이상 민방위대원 - 1시간, 사이버교육

변 경 모든 민방위대원 - 1시간, 사이버교육

* 헌법 제119조 제2항 제2호 제2차 개정(2018.12.14)
* 소독활동 및 의료지원 등 방역봉사 시 교육시간 인정

충청남도



상임위원회 활동

충남 벤처 현장으로 청취

기획경제위원회

벤처협회와 간담회 기업애로 청취 장기적 지역 벤처업체 육성 약속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가 현장 중심 소통 의정활동에 시동을 걸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소통 의정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난달 30일 충남창업센터 나비에서 충남 벤처협회(회장 남승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기경위 소속 의원들은 협회 관계자들과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스타트업 지원 사업(캐스레이션, 복합형) 추진, 지역 특색에 맞는 4차산업 기업 육성방안 도출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협회 측은 이 자리에서 충남형 기후재난 쉼터(에어돔) 설치, 충남형 방역게이트 설치 등의 필요성과 애로사항도 건의했다. 의원들은 “방역기술과 전기배터리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이 도내에 많이 있음에

도 적절한 지원이나 정보 부족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건의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위원장을 맡으면서 도민과 더욱 자주 만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은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은 물론 경제가 회복되고



안장현 위원장



조승만 의원



조길연 의원



이공휘 의원



방한일 의원



오인철 의원



이선영 의원

일자리도 많이 창출되는 좋은 날이 오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도내 녹조라떼 잡는다”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하천 수질개선 통한 녹조예방 사업’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

충남도의회가 도내 심각한 녹조현상 이른바 ‘녹조라떼’를 잡기 위한 연구에 돌입했다.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지난달 24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안전소위 소속

의원들과 충남도, 민간전문가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소관 상임위 연구용역 과제인 ‘소하천 유입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 사업 연구’에 대한 활동 계획과 용역 수행 일정 보고, 토론 순으로 열렸다. 사단법인 자치분권연구소 김정수 책임연구원은 용역 수행 보고에서 “최근 녹조로 인한 오염으로 각종 민원과 생태계 교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면서 근본적 개선 대책과 선제적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기간 동안 녹조 발생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을 제안한 이계양 위원장은 “심각한 하천 녹조 현상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특히 지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공주시 인근 공주보 개방으로 녹조가 없어지고 깨끗한 환경이 조성됐지만 아직도 부여보 인근에는 녹조가 개선되지 않아



이계양 위원장



지정근 의원



김복만 의원



김대영 의원



전익현 의원



최훈 의원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찾는다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연구모임

“사각지대 해소 마중물 되겠다”

충남도의회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연)은 지난달 24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모임 의원, 관련분야 전문가, 충남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과제인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사업 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복지재단으로부터 착수보고 발표를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실질적인 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연 의원(천안7)은 “이번 연구용역은 충남도 사회서비스 관련 수요공급



지난달 24일 ‘충남형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모임’은 운영사업계획에 대한 연구방향을 논의했다.

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충남사회서비스원 사업 모델을 정립, 사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며 “향후 연구모임 활동 결과 및 연구 과제를 정리한 종합 보고서 발간을 통해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유아 돌봄공동체 모델 개발 착수

가족친화 환경조성 연구모임

“사회 지속가능성 위한 필수요소”

충남도의회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옥수)은 지난달 24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회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 과제인 ‘충남형 영유아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으로부터 착수보고 발표를 청취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실질적인 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옥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가족친화적인 도민의 생활과 지역을 창출하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대안



‘가족친화 환경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은 지난달 24일 돌봄 공동체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을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4차의 연구모임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역적 돌봄 수요 공급 격차를 고려한 모형을 구체화하고 도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서론

충남대 내포캠퍼스를 혁신성장 거점으로



이공휘 충청남도의원

올해는 계획상으로 내포신도시 완공의 해다. 물론 지금 내포의 모습을 완성형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기업 분양부터 종합병원 유치까지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수도권에 경제력이 집중된 현실에서 힘이 부족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 속도에서 미흡했을 뿐 내포신도시가 최고의 명품도시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년 말 충남도와 충남대학교 그리고 흥성군은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을 위한 MOA(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심각한 고령화 현실에서 지역 대학 유치는 단순한 인구유입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밤새 연구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학생들의 에너지는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다. 성공적인 충남대 내포캠퍼스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먼저 충남대와 내포첨단산업단지 간 산학연네트워크에 기초해 철저하게 실용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대학 내에 기업연구소를 두고 교육과정에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 충남도립대를 통해 기본적인 소양과

고급 기술을 공부할 준비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충남대학교는 그런 인재를 수용해 지역의 거점대학의 역할을 맡는다.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맞춘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대학의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신기술 개발과 비즈니스 창출이 이뤄지면 투자자도 몰려들 것이다.

다음으로 충남도와 충남대 간 협력적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 등의 흐름 앞에서 있다.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이루기 위한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할 때다. 충남대는 바이오경제, 첨단부품산

업 등 도의 핵심과제에서 연구중심이 돼야 한다. 도내 대학들과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연구에 참여하고 정보가 공유되면 시너지는 더욱 커질 것이다.

충남대는 연구성과물을 도에 제공하고 도는 연구를 아낌없이 지원한다. 도의 핵심과제를 연구한 학생들은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대표적인 오지였다. 변화는 텍사스대학에서부터 시작됐다. 대학은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했고 이곳에서 세계적인 회사 델(DELL) 컴퓨터가 탄생했다. 또 오스틴 시 정부가 앞장서 친기업

적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를 유치했다. 오늘날 오스틴은 테슬라, 삼성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이 몰려들고, 게임산업의 메카로 불린다. 실리콘밸리를 뛰어 넘는 실리콘힐로 자리 잡았다.

무엇이 깡촌을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했을까. 혁신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문화 위에 지역주민과 지도자들의 협력이 어우러진 결과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없다.

충남대는 지역성장의 거점으로서 도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자율적인 지역혁신을 선도하고, 충남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정주여건 개선을 적극 뒷받침한다. 도민들의 협력과 참여도 필수요소다.

이러한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면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오스틴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 “도민 생활 정상화에 역량 집중할 것”

수해복구 상황점검·복구 작업 참여
천안·아산·예산·금산 수해 현장서
응급복구 대책 논의·작업 힘 보태

충남도의회가 수해 현장 응급복구 추진상황 점검과 복구 작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힘을 보탤 예정이다.

도의회는 지난 4일 침수 피해 복구에 한창인 예산군 상설시장을 찾아 복구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이어 급류에 휩쓸린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아산시 송악면 일원 상황본부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실종자 가족에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표했다.

김명선 의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실종 등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 6시까지 도내에 내린 비의 양은 평균 77.5mm를 기록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예산에서는 지하차도가 침수되거나 작은 다리가 파손되는 등 총 642건의 시설 피해가, 아산에서는 시설피해 402건을 비롯해 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방한일(예산1)·김영권(아



충남도의회는 천안, 아산, 예산, 금산 등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대책을 논의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사무처직원들이 금산 인삼농가에서 긴급복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



산1)·조철기(아산3)·안장현(아산4) 등 해당 지역 구 의원을 비롯해 안전건설소방위원장인 이계양 의원도 함께 동행했다.

김명선 의장과 전이현 제1부위원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30여명은 지난 10-12일 천안시, 예산군, 금산군 등지에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 작업에도 동참했다.

김명선 의장과 의회사무처 직원 30여명은 11일 천안시 수신면 일원의 침수피해 농가를 찾아 수

해 복구 작업 등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김 의장과 사무처 직원들은 이날 마을 쓰레기 잡하물 수거, 찢긴 비닐하우스를 정비하는 등 수마가 할린 상처 지우기에 주력했다.

이들은 12일 금산으로 장소를 옮겨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찾아 긴급복구 작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날 침수 피해로 쓰러진 인삼밭 차양막 제거 및 인삼을 수거하는 등 수마가 할린 상처 지우

기에 총력을 다했다.

김명선 의장은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수해 복구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사무처 직원 등이 솔선수범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보호 촉구 건의안’ 충청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조성 위한 제도 장치 마련과 한국소비자원 충남지원 설치 촉구를 골자로 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충청남도의회 제2기 정책위원회 출범

활발한 입법·정책연구활동 지원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정책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했다.

정책위는 도의원 11명을 비롯해 교수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 9명까지 모두 20명이 위촉됐다.

위원장은 김동일 의원(공주1)이, 부위원장은 최재왕 전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장이 선임됐다.

더욱 전문적인 정책연구 활동을 위해 정책위 산하에 3개 소위원회도 편성했다.

1소위원장(기획경제·교육위 소관)은 이선영 의원, 2소위원장(행정문화·복지환경위 소관)은 황영란 의원, 3소위원장(농수산해양·안전건설소방위 소관)은 최훈 의원(공주2)이 각각 맡았다.

2기 정책위는 11대 의회가 끝나는 2022년 6월까지 자치법규 입안 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업무를 심사·수행한다.

적정기술 활성화·적용방안 연구모임

청년 농업인 활성화 방안 찾는다

충청남도의회 ‘적정기술 활성화 및 지역사회 적용 방안 연구모임(대표 방한일)’은 지난달 29일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충남 청년 농업인 육성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연구모임 회원 10여 명과

관계자들은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공유경제지원센터’로부터 착수보고 발표를 청취하고 향후 연구방향과 실질적인 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 시간을 가졌다.

연구모임 대표인 방한일 의원(예산1)은 “후계 인력이 부족해진 농업을 활성화 시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청년 농업인의 실태 및 청년 농업인 육성방안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의미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충남인재들이 자신의 날개를 마음껏 펼치도록 도와줄 보금자리가 드디어 완공되어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개관식에 축하메세지를 남겨주세요.

남겨주신 글은 서울학사관의 역사로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일시 2020. 8. 31.(월) 15:00 ~ 16:00

참여방법
 ▶ 실시간 : 유튜브(충청남도)
 ▶ 문자 : 010-4455-9805
 ▶ 카카오톡 : eocjssla@cninjae.com
 ▶ 인스타그램 : @cn_injae
 ▶ 페이스북 : 페이지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충청남도지사 ·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이사장